大學生의 學業 不適應에 대한 綜合的 問題分析 및 解決方案

夫萬根*· 許鐵洙**· 宋成大**· 高永友***

目 次

Ⅰ. 緖 論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2. 硏究의 計劃 및 硏究期間
Ⅱ. 學業 不適應의 一般的 特性과 要因
1. 學業不適應의 槪念과 過程
2. 不適應 學生의 一般的 特性
3. 學業 不適應의 要因
Ⅲ. 硏究方法 및 節次
1. 硏究對象 標集
2. 調査道具
3. 資料處理 및 分析
4. 硏究의 制限點
Ⅳ. 結果 및 解釋
1. 各 問項別 上·下位集團의 比較
2. 要因別 上·下位集團의 比較
Ⅴ. 結論 및 提言
○ 參考文獻
○ 附 錄

Ⅰ. 緖 論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大學은 學問的 卓越性(academic excellence)을 추구하는 學問社會로서 大學의 기본성격이 知的 共同社會 내지 學問的 協同體(academic community)이고 보면 대학의 존재 이유는 學生에 있으며 학생의 知的 秀越性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大學教育에 관한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學問的 自由와 現實參與가 大學教育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高等教育機關의 量的膨脹과 質的秀越性의 추구, 그리고 전반적인 학문적 풍

"이 論文은 1986年度 文教部 學術硏究 助成費에 의하여 硏究되었음."

* 學生生活硏究所長(社會科學大學 副教授)
** 學生生活硏究所 專門委員(師範大學 助教授)
*** 學生生活硏究所 調査硏究·相談指導部長(農科大學 專任講師)

토 등의 문제에서 高等教育이 발전할 수 있는 활로를 찾고 고등교육을 통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중요한 課題로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高等教育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는 學習風土와 관련된 문제로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學問探究에 대한 열의와 大學教育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학습에의 참여문제이다. 高等學校 단계에서 入試爲主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은 大學에서도 그러한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學問의 探究나 學習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일 수가 있다. 물론 대학의 物理的 環境條件이나 傳統的인 教授·學習方法이 학생들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학문탐구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시간, 정력, 그리고 노력을 學問探究 過程에 투입하는 가이다.

美國 高等教育秀越性의 조건에 대한 연구팀 (Study Group on the Conditions of Excelle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1] 은 美國高等教育의 秀越性을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서, ① 學生의 學習參與, ② 學生의 높은 期待水準, ③ 評價와 feedback에 대한 현존의 知識適用으로 제시하고 그 중 대학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은 學生들의 自發的이고 적극적인 學習參與라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동안 우리 나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만 하면 거의 졸업이 보장되는 제도였다. 이러한 風土속에서 학생들이 學問的 姿勢나 학문에의 열의가 나태하고 소극적이라고 판단, 卒業定員制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卒業定員制 실시 이후 우리 나라 대학생의 學習態度나 學問探究 姿勢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質的인 수준에서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학문탐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학습의 소홀은 大學教育의 秀越性 추구는 물론 학생 개인에 있어서나 國家·社會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學問探究熱과 姿勢는 大學教育의 發展을 沮害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2]

따라서 本 研究는 大學生들이 대학에서 학문적 성취를 저해하고 있는 不適應的 要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綜合的으로 分析·把握하여 大學生들이 學業不適應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고자 함에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計劃 및 研究期間

1) 計劃 및 準備	1986. 1
2) 文獻資料 蒐集·分析	1986.3 ~ 7

1) "Study Group on the Conditions of Excelle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volvement in Learning": Realizing the Potential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1984, p.17.

2) 姜武燮, "韓國 高等教育의 發展 潛在力", 韓國 高等教育의 未來展望과 發展戰略,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85, pp. 56 ~ 60.

3) 設問紙 作成	1986.8～9
4) 調査實施	1986.10
5) 資料處理	1986.11
6) 報告書 作成	1986.11～12
7) 報告書 印刷	1987.1

Ⅱ. 學業不適應의 一般的 特性과 要因

1. 學業不適應의 概念과 過程

教育은 人間育成의 한 작업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成長·發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青年期 大學生들의 學業成就 向上은 그들의 全人的 人間育成의 차원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며 그들의 學業成就의 문제는 學校生活, 家庭, 社會 및 個人生活의 不適應을 초래하는 原因이 되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學校教育이 教科의 學業成就 課業만이 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며 특히 教授, 學生, 學父母 및 심지어 일반 사회인에 이르기까지도 學業成績만이 學校教育의 주된 관심사요 目的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不適應 현상을 초래하는 學生問題가 大學社會의 課題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러한 不適應의 문제는 心理的 불편감, 認知的 非能率性, 身體的 기능의 장애, 社會的 規範으로부터의 이탈행동 등[3]의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관심과 배려 및 지도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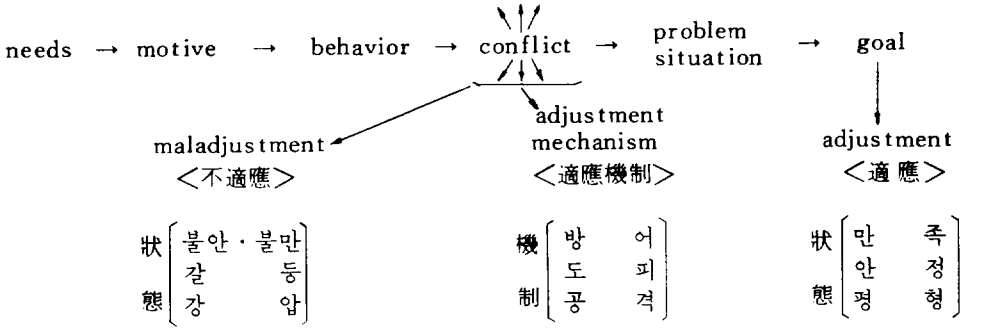
大學이라는 일정한 환경속에서 동일한 教授·學習事態에 있으면서도 學業成就가 높은 學生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낮은 학생도 있다. 또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애초부터 知能이나 適性이 부족해서 뒤떨어지는 학생이 있고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適性이 맞지 않아 學業成就가 낮은 학생이 있다. 또 과거에는 성적이 좋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학생도 있다. 이는 學校의 學習事態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으로서 특히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學習狀況에 잘 適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鄭元植[4]은 學業不振學生의 概念을 "개인의 학습가능성으로 보아 기대되는 成就水準에 미달되어 있는 學生"으로 定義를 했고, 黃禎奎[5]

3) Lazarus, R.S., "Adjustment & Personality", 서봉연(譯), 서울 : 益文社, 1977, pp.31～32.
4) 鄭元植, "學業不振의 原因糾明을 위한 事例研究",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79, p.3.
5) 黃禎奎, "學習史의 맥락에서 본 學習不振學生", 신세호외(편집), 學習不振學生에 대한 理論的 考察,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79, p.15.

는 "個人의 內的 혹은 外的 要因에 의해 그 개인의 發達水準 및 教育段階에서 요구하는 學習課題의 성취에서 수락할 수 있는 최저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學習者"라 하여 心理的 또는 環境的 이유로 學業推進에 適應되지 못하여 학력의 증진이 되지 않는 상태를 學業不適應의 한 범주로서 學業不振을 定義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學業不適應을 "주어진 學習課題를 生産的으로 감당해 내지 못하여 學習活動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는 不適應의 상태"로 槪念化한다.

人間에게는 生存에 필요한 여러가지 生理的 欲求와 이를 바탕으로 학습된 많은 社會的 欲求가 있으며 이들이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人間行動의 動機를 이룩하고 活力素가 되고 있다. 이러한 欲求의 대상을 目標라 하며 그래서 動機誘發된 행동은 目標志向的이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欲求와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物理的 環境 때문에, 또 때로는 社會와 주위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자기자신의 능력부족 때문에, 또 때로는 이들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설정된 目標를 성취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충족되어야 할 欲求 또는 動機가 저지되고 目標志向的 行動이 차단된 欲求挫折 상태에 봉착했을 때 欲求挫折의 원인을 통찰하여 欲求나 目標를 현실적으로 수정하거나 외적 지원을 얻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目標達成을 위한 合理的인 行動을 하는 것은 適應된 行動이지만 때로는 目標達成과는 거리가 먼 지나친 자기防禦的 行動 또는 不適應行動을 초래하게 된다.[6] 또한 葛藤(conflict)적 상황에서 場理論的 측면에서 볼 때 이는 目標와 目標가 대등한 有意性(balance)을 띠어 場의 힘이 대립된 상태로서 어떤 경우는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만 場의 힘이 너무나 대등할 때는 좀처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葛藤이 오래 지속되어 해결되지 않을 때 不適應行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行動過程에 따른 適應과 不適應過程을 綜合하여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7]



6) 鄭元植外, "現代教育心理學", 서울 : 教育出版社, 1983, pp.249 ~ 251.
7) 張大雲, "現代教育心理", 서울 : 正民社, 1985, p.241.

이와 같이 不適應 현상은 葛藤과 欲求不滿을 해소하기 위한 合理的인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非合理的 方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 할 때 당초의 요구나 목표는 만족될 수 없게 되고, 전체 環境과의 不調化, 不均衡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對人關係가 원만하고 협동적이며 정직하고 관용성이 있어 당면하는 모든 學習活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學生은 학교에서의 적응이 잘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반대로 情緖的으로 不安定하고 친구와 다투고 질투심이 강하며, 수업시간에 나태하고 결석이 잦은 학생은 부적응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不適應의 경우 그 학생이 적응에 실패하였다는 의미에서 보다는 適應失敗에서 일어나는 파생적 징후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게 한다.

2. 不適應學生의 一般的 特性

Adamson[8] 은 學業不適應을 行動特徵에 따른 類型으로 區分하고 있으며, Lazarus[9] 는 不適應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어려우나 適應이 잘되지 않는 징표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心理的 不便感을 가지게 되고, 둘째로 認知的 非能率性을 보이며, 세째로 身體的 機能의 障碍를 일으키며, 네째로 社會的 規範으로부터의 이탈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不適應의 상태는 行動이나 欲求, 感情, 思想 등이 社會秩序와 규준에 비추어 용납되지 않거나 個人과 社會와의 관계가 不調化, 不均衡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崔正薰[10] 은 不適切한 人間의 知覺的 特性으로서, ① 기본적으로 否定的 自我意識을 가지고 있으며, ② 受容態勢가 결핍되어 있고, ③ 他人과 널리 共同意識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洪載鎬[11] 外는 學業不振學生의 特徵으로서, ① 學習速度가 느림, ② 기억력이 낮다. ③ 學習動機, 知的 好奇心, 興味 등이 약하다. ④ 기초적인 學習技能이 결손되어 있다. ⑤ 學習技術이 부족하다. ⑥ 學習行動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知的·情意的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梨大 人間發達硏究所에서 실시한 '學業不振學生 지도를 위한 實驗的 硏究'[12] 에서는 학업부진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綜合的으로 제시하고 있다.

1) 學習習慣

○ 규칙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공부한다.

---

8) Adamson, W.C., "Questions, Definitions and Perspectives", K.K.Adamson(ed.), *A Hand-Book for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N.Y. : Gardner Press, Inc., 1979, pp.12～15.

9) Lazarus, R.S., "Adjustment and Personality", 서봉연 (역), 서울 : 益文社, 1977, pp.31～32.

10) 崔正薰, "知覺心理學", 서울 : 乙酉文化社, 1973, pp.144～148.

11) 洪載鎬外, "學習不振學生을 위한 補充學習資料 開發 및 適用", 서울 : 韓國敎育開發院, 1979, pp.8～9.

12) 梨花女大師大 人間發達硏究所, "學業不振學生 指導를 위한 實驗的 硏究", 1973, pp.154～155.

o 공부하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루어 결과적으로 낙오되어 간다.
o 공부할 때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며 참고 견디어 내지 못한다.
o 학교 다니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못한다.

2) 學習行動

o 부적당한 지각양식을 가지고 학습한다. 즉 전체와 부분을 연결지어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o 일반적으로 단기 암기력에 결함이 있으며 주의집중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o 선행학습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미 배운 문제와 새로 배울 문제를 연결짓지 못한다.
o 선행과제와 유사한 다른 과제를 학습할 때 이전에 배운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 즉 **轉移**가 잘 안된다.
o 일반적으로 학습속도가 느리다.

3) 情意的·人性的 特性

o 비교적 성취동기가 낮다.
o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어서 정서적 긴장과 불만이 지속되는 편이다.
o 자기방어적이고 자기 실패를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o 책임감이 부족하고 집단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다.
o 사회적 활동이 적고 지도성이 부족하며, 사회적으로 적응이 잘 안되는 편이다.
o 학업이나 직업 그리고 장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다.
o 인성의 통정을 잃거나 정신건강이 약화되어 있다.
o 형제나 교우간 갈등이 심하다.

4) 環境條件

o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편이다.
o 부모가 학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희박하다.
o 학교가 학업부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o 가족가운데 성취와 향상을 위한 모범을 보여줄 만한 인물이 없다.
o 지역사회의 환경이 문화적,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빈약하다.
o 일반적인 청년문화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社 會 性

o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o 집단생활에 관심이 적고 규율이나 규칙을 지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상과 같은 一般的 特性외에 不適應의 原因에 의해 나타나는 不適應의 行動的 徵候를 보

이기도 한다.[13]

1) 外顯的 不適應類型

얼굴을 자주 찌푸림, 지나치게 눈을 깜빡거림, 웃을 자주 매만짐, 잘 놀람, 사소한 일에 화를 냄.

2) 內面的 暴發反應으로서의 不適應類型

긴장, 지나친 고집, hysterical 한 웃음과 울음, 공격적 언동.

3) 自己顯示的 不適應類型

무엇이든 중심인물이 되려고 함, 과장된 행동, 구성없는 발언으로 좌중을 웃기거나 빈축을 삼.

4) 攻擊的 不適應類型

虛言壯談, 싸움, 비난과 배척, 난폭한 언사나 행동, 과시적 행동, 이탈행동.

5) 身體的 異常에 의한 不適應類型

피로, 두통, 식욕상실, 불면증, 소화불량, 식은 땀이 잘 나고 손이 떨림.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適應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不適切하다는 것 자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人間전체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생을 처리해 나아가는 것처럼 또한어느 정도의 不適正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學生이 적응에 실패하였다는 의미에서 보다는 適應失敗에서 일어나는 파생적 징후인 공격성·신체적·정신적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데 더 큰 유의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學業不適應의 要因

學生들의 學業不適應 問題를 惹起시키는 要因들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여러 가지 複合的인 原因이 作用한 결과이고 보면 學業不適應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學業不適應의 문제는 學業成就와 불가분의 相對的인 문제이어서 學業成就와 關聯하여 論함이 마땅하다.

Mitzel[14]은 學生이 學業成就를 결정하는 要因을 ① 教師變因, ② 學生變因, ③ 授業變因, ④ 環境變因 등 네 가지로 大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分類로서 鄭範謨와 李星珍[15]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3) 張大雲, 前揭書, pp.254 ~ 256.
14) Mitzel, H.E., "A Behavior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Teacher Effectiveness", 1957, p.5.
15) 鄭範謨·李星珍, "學業成就의 要因", 서울 : 教育出版社, 1979, pp.16 ~ 22.

(1) 學習者變因 { ○ 知的 側面: 선행학습능력, 일반능력 (지능 · 적성 등)
○ 情意的 側面: 학습동기, 성취동기, 포부수준, 자아개념, 불안,성격, 학습방법

(2) 授業 (教授) 變因 : 수업체제, 평가체제, 학습집단구성, 교사행동

(3) 環境變因 : 교육풍토, 문화 · 가정환경, 학급의 사회적 환경

또한 金純澤[16] 은 學習者, 學習課題, 授業의 세 가지를 學校學習의 변인으로 보고 학습자가 나타내는 學業成就度는 학습자가 가진 특성, 학습과제의 성질과 종류, 그리고 교사가 행하는 授業方法간에 일어나는 相互作用의 産物이라 하였고 그는 學習者가 보이는 特性[17]을 知的 能力 特性, 情意的 特性, 身體的 能力 및 特性, 家族 및 家庭의 社會 · 經濟的 背景, 性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과제의 성질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적절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최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Carroll[18] 은 學業成就의 정도를 결정하는 變因을 크게 學習者變因과 教授變因으로 나누고 학습자변인으로 적성, 수업이해력 및 수업지속력을 들고 있으며 교수변인으로는 학습의 기회와 수업의 질, 두 가지를 들고 있다.

Bloom은 Carroll 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가면서 학습자의 特性인 知的 出發點行動 (cognitive entry behavior) 과 情意的 出發點特性(affective entry characteristics) 과 授業의 質 (quality of instruction) 에 있어서의 變差가 학업성취의 성격을 좌우할 것[19] 이라고 想定하고 개별적인 학습자, 수업, 학습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취된 학습사이의 相互作用을 검토하고 있다. 즉 특정한 學習課題를 학습하는 데 先行要件이 되는 知的 出發點行動은 學業成就의 50 %를 설명해 주고 흥미, 태도, 자아개념 등 情意的 特性은 25 %를 설명하여 이 두 학습자 특성이 학업성취를 65 % (r =.80) 를 설명해 준다고 한다. 또한 단서, 참여, 강화, feedback 교정 등 授業의 質이 學業成就의 90 %를 예언하고 있음을 밝혔다.[20] 이렇게 볼 때 학업성취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環境的 特性(授業) 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學業成就가 여러 變因間 相互作用의 産物이고 보면 學業不適應 역시 學業不成就 결과를 초래하는 여러 變因間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자기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不適應行動은 적응행동과 다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건전' 하게 반응하는 방식과 '불건전' 하게 반응하는 방식은 근

16) 金純澤, "情意的 特性과 學業成就", 鄭範謨 · 李星珍, 上揭書, pp.16 ~ 22.
17) Klausmeier, H.J. & Ripple, R.E., "Learning and Human Abilities", N.Y.: Harper & Row, 1971, p.19.
18) Carroll, J.B., "A model of School of Learning", Teacher College Record, 64, 1963, pp.723 ~ 733.
19) Bloom, B.S., "Human Characteristics & School Learning", N.Y. : McGraw-Hill Book Co., 1976, pp.10 ~ 13.
20) Ibid., p.169.

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며 이 두 反應方式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학습배경을 나타내고, 또 학습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學校學習活動과 관련된 不適應行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일까?

不適應이 개체와 환경간에 不均衡, 不調和로우며,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형성·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인 동시에 欲求挫折이나 葛藤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行動過程이라 볼 때 부적응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個體의 性質과 欲求, 그리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위 環境的 여건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學業不適應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內的條件이 되는 學習者要因과 外的條件이 되는 環境的要因으로 크게 大別하여 學業不適應의 要因을 分析·提示하고자 한다.

學業不適應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學生變因으로서 認知的側面과 情意的側面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認知的特性과 學業不適應과의 關係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一般知能要因이 교과성취에 관한 最適의 豫言變因이며 각 特殊適性檢査는 오히려 그 예언능력이 낮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은 각 교과가 요구하는 특수한 적성에 맞추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학교에서의 수업이 교과에 상관없이 주로 言語的인 手段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음[21]을 볼 때 각 특수한 과목에 대한 예언은 一般知能과 동시에 그 學習課題가 요구하는 特殊能力 또는 適性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능은 學業成就의 수준을 결정해 줄 뿐 아니라, 學習課題를 학습해 내는 학습속도를 결정한다고 믿어왔으나 한 학습과제를 학습하는데 적절한 學習機會가 주어진다면 知能은 학습의 수준, 즉 學業成就度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學習의 速度를 결정해 줄 뿐이라는 것이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지적[22]되고 있어서 知能이 學校學習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음[23]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知能과 先行學習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지능은 학습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先行學習의 정도가 오히려 성취의 수준을 결정해 준다는 것인데 이의 대표적인 Eigen과 Feldhusen[24]의 연구를 보면 知能과 先行學習이 學業成就에 주는 영향을 비교할 때 지능의 영향이 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李炯得·金燦坪[25]의 學業不振大學生의 心理的 特性에서 밝히

21) 任寅宰, "先行學習 및 一般知能과 學業成就", 鄭範謨·李星珍, 前揭書, p.141.
22) 上揭書, p.146.
23) Bloom, B.S.,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McGraw-Hill Book Co., 1976, p.54.
24) Eigen, L.D. & Feldhusen, J., "Interrelationship among Attitude, Achievement, Reading, Intelligence and Transfer Variables in Programmed Instruction", *In Educational Technology*, J.P.De Cecco, (ed.),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4, pp.376～386.
25) 李炯得·金燦坪, 學業不振 大學生들의 心理的 特性과 學習習慣의 變容 및 自己統制力의 발달이 그들의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 啓明大學 學生指導硏究所, 指導相談, 1973, p.85.

고 있는 바와 같이 능력에 대한 自我槪念의 발달수준, 學習資料를 조직하고 계획하는 지식 및 실천도, 效果的인 학습기술에 대한 知識 및 실천도, 學業成就動機 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大學에서 學業不適應의 문제는 情意的 特性 측면에서 관련성이 깊다고 하겠다.

2) 情意的 特性과 學業不適應과의 關係

學校學習活動과 學習者의 情意的 特性과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 논의할 수 있다. 한 측면은 學校學習이 일어나게 하는 原動力의 하나로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學校學習의 결과로서 형성되는 情意的 特性이다. 前者는 學校學習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보는 입장인데 반하여, 後者는 學校學習의 結果로서 개인의 情意的 特性이 變化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때 변화된 정의적 특성은 다시 다음 學習課題의 학습을 가능케 하는 原動力으로서의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前者의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즉, 學習動機가 없다면, 抱負水準이 낮다면, 學習行動에 관한 自我槪念이 부정적이라면, 학습에 대한 否定的 態度나 興味를 가지지 못하면, 또 지나치게 심한 不安狀態에 있다면, 學習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學業不適應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 전제를 지닌다.

學生은 새로운 과제에 접하게 될 때 그 과제의 난이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學習課題에 대하여 학생이 認知하는 난이도는 학생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정력을 투입할 정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認知된 과제의 난이도는 전적으로 學習課題 그 자체에 의해서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과거 學習經驗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만약 학생이 어떤 수준의 學習課題에서 계속 성공을 경험해 왔다면 그와 유사한 정도의 어려움을 가진 새로운 과제에 임하게 될 때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또한 이 逆도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Bloom[27]은 한 개인이 몇년 동안 學習課題를 성취했을 때 그 성취에 대하여 자기 인정과 타인의 인정을 경험했다면 그는 최소한 學校學習活動에 연관해서 일반적인 적합감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 반대의 상황이면 부적합감을 구축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學習者의 自我槪念은 학업성취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실패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自我槪念은 일단 어느 정도 형성되면 개인의 인성적 특성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永續性을 갖지만 經驗에 의해서 變化된다.[28] 학생 개인이 주어진 환경과의 相互作用의 과정에서 失敗經驗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한 학습자는 자신의 낮은 성적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欲求不滿을 느낄 것이고 이러한 느낌은 자기 자신에 대한 自我感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욱 부정적인 自我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學業에 대한 成功과 失敗의 경험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학생의 自我槪念에 대한 영

27) Bloom, B.S., *op. cit.*, 1976.
28)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Auckland": McGraw-Hill International Book Co., 1981.

향을 주기 때문에 成功感과 失敗感 또는 滿足感과 不滿足感은 自我槪念과 學業成就間의 상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29]

Brookover[30] 外는 自我槪念과 學業成就와의 관계를 밝히는 綜合的 硏究에서 人間의 지적 능력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정은 의심스럽다는 말과 함께 인간의 학업에 대한 태도가 學業成就의 정도를 제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Hall 과 Lindzey[31] 는 學業的 自我槪念이 能力에 대한 自我槪念으로 설명하고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의 발달수준에 대하여 볼 때 학업부진 집단의 학생은 학업정상의 학생보다 그 발달 수준이 훨씬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Brookover[32] 外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은 學業成就度와 의미있는 正的關係가 있는가의 문제를 연구한 결과 학생이 자기 능력에 대해 보고한 自我槪念은 學業成就度의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學業成就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학업성취를 위해 必要條件이지 充分條件은 아니다. 왜냐하면 학업성취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 가운데도 중간이상의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성공적인 학생은 자신에 대해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있고 미래의 성취행동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학습에 성공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아를 비하하고, 억압하며, 항상 자아에 대해 부적절감과 열등의식을 가지며, 이와 같은 認識의 累積은 學業不安, 敵意感, 挫折을 경험하게 되며 곧 흥미를 잃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33]

다음은 學習方法과 態度가 學業成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學習方法이란 학습자가 실제로 학습에 종사하는데 동원되는 모든 기술이나 그 활동에 관련된 모든 습관을 총칭하는 말[34] 로 사용될 수 있겠는데 Ausubel 과 Robinson[35] 은 학교학습의 성과에 관련되는 요인의 하나로서 '練習'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최적 연습스케줄을 고안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變因'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

29) Thomas, J.B., " Self-Concept in Psychology and Education", *A Review of Research*, NFER Publishing Co., 1973.

30) Brookover, W.B., Patterson, A. & Thomas, S., "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1967, 34, pp.271～278.

31) Hall, C.S.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Y. : Wiley, 1967, p.114.

32) Brookover, W.B., Patterson, A. & Thomas, S., *op. cit*, p.278.

33) 金豪權外, "自我槪念의 變化에 관한 擬似 縱斷的 硏究", 서울 : 韓國行動科學硏究所, 112, 1979, p.8.

34) 李烘雨, "學習方法과 學業成就", 鄭範謨 · 李星珍, 前揭書, p.190.

35) Ausubel, D.P., and Robinson, F.G., "School Learning": An Introduction to Educational Psychology", N.Y. : Holt, Rinehart & Winston, 1969, p.278.

〈獨立變因〉

(1) 학습시간의 분배 — ○ 전습법 대 분습법
○ 학습이후 첫연습까지의 시간
○ 1회적 연습대 분배된 연습

(2) 연습의 종류 — ○ 암송 대 요약 ○ 내면적 반응 대 외현적 반응
○ 지도와 촉진의 양 ○ 구조화의 정도
○ 획일적 연습대 다양한 연습
○ feedback의 양과 종류

〈限定變因〉

(1) 교 과 — ○ 의미있는 교과 대 맹목적 교과
○ 자료의 곤란성 ○ 학습내용의 양
○ 계열적 관련성 정도

(2) 학습자 — ○ 연령 ○ 지능 ○ 발달단계
○ 교과의 선행학습

〈從屬變因〉 — ○ 단기학습
○ 장기간에 걸친 把持
○ 轉移

학습방법과 학업성취에 관련하여 위에 열거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학습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 연습은 어떻게 하며 교과가 의미있는 것인가 아닌가, 얼마나 어려운가, 학습해야 할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학습자료가 계열적으로 얼마나 상호관련되어 있는가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학업성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와 학습습관에 관한 先行研究인 Brooks 외[36] 10여 명이 연구한 바가 있는데 결과는 모두 의미있는 상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Brown과 Holtzman은[37] S.S.H.A.(Brown, Holtzman, Survey of Study Habits and Attitudes) 검사로 學業成就와 學習習慣간에는 .45의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 적응행동, 자율학습행동 등의 學習習慣構造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38]

成就動機가 어떤 과제나 과업을 달성하려는 개인의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을 말하는 데 반

36) 金玉煥, "學業成績, 知能, 學習習慣, 性格의 相關研究,"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1979, p.216.
37) Kisuk, Kim., "The Use of Certain Measurement of Academic Aptitude, Study Habits, Motivation and Personality in the Predi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Humanities*, Vol.1. p.79. Seoul : Yon Sei Univ. Press, 1957.
38) 朴慶淑·李惠先, "學業에 대한 自我概念, 態度, 學習習慣檢査開發에 관한 연구," 韓國教育, 제 3 권 1 호,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76, p.92.

하여 課題動機는 과제자체에 內在되어 있는 것[39]이라 할 수 있는데, 朴容憲[40]은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이 보이는 行動的 特性을, ① 課業指向的 行動, ② 적절한 冒險性, ③ 자신감, ④ 精力的·革新的 活動性, ⑤ 자기책임감, ⑥ 결과에 대한 知識追求, ⑦ 未來指向性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諸 行動特性이 많이 갖추어진 사람일수록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Ausubel[41]은 어떤 學習課題를 성취하려는 동기는 課題자체에 內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課題의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되면 기본적인 동기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성취는 개인의 자아를 고양시키게 되고 自我尊重感과 安定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된다. 學校學習을 보는 理論的인 체계면에서 Ausubel과 대단히 다른 입장에 있는 Skinner[42] 역시 과제 자체의 수행에 내재되어 있는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이 계속 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조건을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成敗의 原因 知覺樣式[43]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제나 사건의 결과가 內的 要因보다 外的 要因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는 사람은 무력감을 보다 많이 느끼며, 불안정도가 높고, 집단압력에 보다 의존적임이 밝혀졌다.[44] Feather의 연구에서는 內的 要因보다 外的 要因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된다고 지각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피험자의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Coleman, Campbell, Weinfeld & York 등의 成敗歸因樣式과 學業成就와의 관계를 밝힌 여러 연구들은 내적으로 귀인하는 학생들이 외적으로 귀인하는 학생보다 좀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였다[45]고 보고하고 있다. 成敗要因은 情緖反應과 성공기대를 통하여 성취속도, 행동의 선택과 지속 등의 동기화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46] 즉 실패를 내적요인 즉 능력의 결여로 귀인한 사람이나 성공을 외적요인 즉 행운으로 귀인하는 사람에게 학업성취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귀인으로 인한 成就結果에 대한 情緖反應과 成就期待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즉 歸因은 학업성취에 정서와 성공기대를 통해 간접적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39) Gagné, R.M., "The Cognitions of Learning,"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pp.285 ~ 288.

40) 朴容憲, "成就動機教育의 教授方案," 서울: 教育出版社, 1974, pp.74~78.

41) Ausubel, D.P., "Educational Psycholog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8, pp.365~366.

42) Skinner, B.F., "The Technology of Teaching," N.Y.: Appleton Century Crofts, 1968, pp. 145~168.

43) Rotter, J.B.(1966)는 이 차원을 統制의 所在(Locus of Control)라고 명명하고 있음.

44) 沈愚燁, "成就動機 및 試驗不安과 成敗의 原因知覺間의 關係分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10.

45) Phares, E.J., Locus of Control H.London(ed.) "Dimensions of Personality," N.Y.: John Wiley & Sons, 1978, p.283.

46) Weiner, B., et.al., "The Cognition-Emotion Process in Achievement-Related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p.184.

Feather[47] 는 균형이론의 바탕에서 自我評價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과제에서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실패를 외부요인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결함으로, 성공을 외부의 영향으로 돌린다고 밝히고 있으나 歸因樣式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은 피험자의 특성이 다르고 學業成就 측정 방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相關關係에 대한 명확한 단언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4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成敗의 歸因樣式에 의해서 學業成就에 방해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요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情意的 特性이 갖는 공통적 특징은 學習過程에서 동기적 기능을 가져서 學業成就度에 영향을 주며 이들 情意的 特性도 人間行動이라는 점에서 學習되며 變化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습의 결과에 따라 그러한 동기적 요소들이 더욱 신장될 수 있고 위축될 수도 있는데 동기적 요소들이 없거나 위축될 경우에 學業不適應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學業不適應 學生들은 새로운 學習課題를 수행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노력해도 안될 것이라는 挫折이 앞서서 학습의욕을 떨쳐버리는 경향이 있고 學習意慾의 저하는 學習成就動機에 영향을 주어 否定的 動機를 형성하게 되고 학습에 대한 興味를 상실하게 된다. 學習의 興味와 意慾의 저하는 學習態度에 영향을 주어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이나 학습수행을 방해하여 學習成就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情意的 領域에서의 단계적인 결과는 모든 認知的 領域의 知覺, 認知, 思考過程에 영향을 주어 學習成就를 저하시키게 되고 아울러 學習成績의 評價知覺은 否定的 自我槪念 형성을 촉진하고 후속학습에 영향을 주게되어 또다시 학습결손을 유발하는 學業不適應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學業不適應을 惹起시키는 要因 중 外的이면서 간접적 변인이 되는 環境的 側面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許炯[49] 등이 家庭環境과 學業成就度와의 關係를 밝힌 결과에 의하면 가정의 物理的 環境變因 (地位環境) 과 心理的 環境變因이 학업성취와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나, 學業成就와의 관계에 있어서 心理的 變因이나 過程變因보다도 物理的 環境變因이 더욱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Dave[50] 는 가정환경의 過程環境的 측면을 중시하

47) Feather, N.T., " Change in Confidence Following Success or Failure as a Prediction of Subsequent Performance," *J. pers. Soc. Psychology*, 9. 1968, pp. 38~46.

48) Stipek, D., " A Caus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irst Grade, "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980. 5, pp. 90~99.

49) 許炯外, " 家庭環境의 諸變因과 學業成就度와의 關係," 서울 : 韓國行動科學硏究所. 1974.

50) Dave, R.H., "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Ph. D.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1963.

여 다음과 같은 6개의 변인을 설정하였는데, ① 成就壓力, ② 가정에서의 言語模型, ③ 가정에서의 學習助力, ④ 探索經驗을 허용하는 刺戟, ⑤ 가정내의 知的興味와 活動, ⑥가정에서 강조하는 學習習慣 등이다. 그는 이 6개의 過程變因과 學業成就와의 상관관계로서 .80의 계수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의 지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가 .50을 넘지 못하는 대부분의 研究結果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관계수이다. 따라서 Dave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면 家庭環境의 過程變因이 다른 변인보다도 학업성취와 보다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家庭環境變因의 구성이나 그것이 개인의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의 특징으로 보아 그 작용을 주도하는 要因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이다. 부모가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環境變因이 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이를 代置할 수 있는 人物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地位環境도 부모에 의하여 결정되고 構造環境도 대부분이 부모에 의하여 좌우되며 過程環境은 말할 것도 없이 부모와의 相互作用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어떤 요인이 그와 같은 環境變因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촛점이 된다. 이 점에 대하여 Alexander[51]의 연구는 좋은 示唆를 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學業成就에 肯定的인 영향을 주는 環境을 刺戟的 教育環境(stimulating educational environment)이라고 하고 否定的인 작용을 하는 환경을 취약적 教育環境(deprived educational environment)이라고 하며, 그들 사이의 주요 차이는 ① 부모가 學校學習에 대하여 부여하는 價値如何, ② 學校學習에 대한 부모의 期待와 强化, ③ 學校教育을 받음으로써 기대되는 장래의 經濟的 보상, ④ 學校教師의 士氣와 能力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에 대한 價値觀과 적절한 期待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權樂遠[52]의 연구에 있어서도 부모의 기대가 學業成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즉 부모의 지위보다도 아동을 대하는 基本的인 태도가 작용의 주도적 요인이 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어떤 基本的인 觀點과 태도로써 아동과의 人間關係를 형성하느냐가 주도적 요인이 된다는 관점이다.

Baird는 教育風土의 理論的 模型[53]을 설정하였는바,

첫째, 投入 또는 先行條件으로서 大學에 들어와 있는 학생, 교수, 직원의 특성과 배경, 可用財源, 物理的 施設, 組織의 歷史的 目的

둘째로, 社會的·心理的 過程으로서 계획된, 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대로 진행되는 大學

51) Alexander, M., "The Relation of Environment to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Master Thesis, Univ. of Chicago, 1961.

52) 權樂遠. "學生이 知覺한 父母 및 教師의 成就期待가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53) Baird, L. L., "The Practical Utility of Measures of College Environment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74.44. pp.307~329.

活動, 行政的 조치,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으로 構造化된 행동, 의사소통 형태, 권력관계 등

세째로, 産出 또는 結果로서 사람들에게 주는 大學의 影響, 大學活動의 결과, 대학의 경제적 또는 物理的 産物 등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 외에 조직의 人的·物的 資源의 선정·배분에 관한 行政的 決定을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姜相兆[54] 역시 學校環境을 ① 統制要因, ② 投入要因, ③ 過程要因, ④ 産出要因 등으로 槪念化하고 있으나 學校環境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요인들 중 학교의 자원, 물리적 시설, 교육비 등은 학생의 배경요인에 비하여 學業成就變量을 거의 설명하여 주지 못함을 지적[55]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學校의 전반적인 行·財政體制와 學業成就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56]

姜相兆 外는 학교환경의 전반적인 특성[57] 을 社會心理的인 측면에서 연구하면서 그 下位變因으로 人間關係, 役割期待, 學校雰圍氣를 포함시키고, 학교분위기 구성요인으로 ① 學問的 成就, ② 社會的 欲求, ③ 同調性, ④ 學生品位, ⑤ 自己表現, ⑥ 自律性, ⑦ 遊戲의 7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학교풍토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學校의 心理的 環境이 학교의 一般的 特性 및 구조보다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金彦柱[58] 역시 學校의 心理的 行動變因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학교의 知的 風土를 학교 구성원 상호간 인간관계 중에서 知的-非知的 기대의 차원을 개념화한 것으로 보고, 그 구성변인으로 學校의 知的 風土變因, 교사의 학생에 대한 期待變因, 교우의 학생에 대한 知覺變因을 포함시켜 學業成就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學校의 知的 風土와 學業成就 關係가 正的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Stern[59] 도 大學의 知的 雰圍氣(intellectual climate)가 강할수록 학생들의 知的 水準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大學의 心理的 環境에 대한 理論的·實際的 硏究에서 Murray가 제안한 32개 압력들을 大學環境에 적용하여 要因分析을 거쳐 11개 차원의 壓力要因으로 제시하였다. ① 抱負水準, ② 知的風土, ③ 학생尊重性, ④ 學的 風土, ⑤ 自己表現, ⑥ 集團生活, ⑦ 學的 組織, ⑧ 學的 成就, ⑨ 社會形態, ⑩ 유흥, ⑪ 職業的 風土, 이 중 知的 雰圍氣가 충만한 대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

54) 姜相兆, "學校環境의 한 槪念 模型," 연구노트, 통권 59호, 서울: 韓國行動科學硏究所, 1975.

55) Coleman, J.S., et.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0.

56) Brookover, W.B., et.al., "School Can Make a Difference, East Lansing, Michigan": College of Urb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7.

57) 姜相兆·李肇玉·李相周, "韓國의 學校文化," 行動科硏, 연구노트 제 9 권, 韓國行動科學硏究所, 1976, pp.52~55.

58) 金彦柱, "學校의 心理的 行動變因과 學業成就度와의 關係," 行動科硏, 연구노트 제 4 권, 韓國行動科學硏究所, 1975. pp.47~50.

59) Stern, G.G., "Environment for Learning," in N. Sanford(ed.), *The American College*, N.Y.: Wiley, 1962, pp.620~730.

다. 즉, 지적 분위기가 강한 대학에서는 遊戲的 활동보다는 理論的·抽象的·藝術的 活動이 많이 일어나며, 慣習的 價値에 순응시키는 압력이 약한 반면에 자유로운 批判과 自己表現 및 自己決定이 장려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抱負水準이 높고 學業成就가 강조되며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자연히 知的 活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적 발달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Gordon[60], Coleman[61], Clark[62] 등의 연구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課外活動, 運動 등과 같은 活動을 중시하는 非學業的 價値(nonacademic values)를 지니게 될 때, 이러한 비공식적 集團規範이 학교의 공식적인 授業活動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非學業的 價値는 학생들간에 教師의 수업에 저항하는 대립세력을 형성하거나 학생들의 學習動機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은 그러한 集團規範의 영향을 받아 學業이나 成績에 대한 輕視, 教師에 대한 非協調를 조장하는 비공식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집단에 적응을 못하면 학습동기가 낮아지고 또 否定的 自我槪念이 형성되어, 따라서 결석도 잦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教育風土와 관련하여 學業成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는 '학습과 생활과의 괴리현상'에서 들 수 있다. 즉 학교에서 학습한 知識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지, 보장되지 않을 때 學業不適應 현상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즉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支援體制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學業成就는 크게 달라진다. 家庭이나 社會에서의 학습에 대한 壓力도 學業成就에 어떤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標準, 즉 어떤 思考方式이 지지, 보강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을 얼마나 價値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습한 어떤 규칙, 사고방식을 더 活用할 수 있게 해 주느냐에 學業成就는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해 Clark은 大學生들의 學生文化 類型을 다음과 같이 教養中心 學生文化, 參與中心 學生文化, 職業訓練中心 學生文化, 學問中心 學生文化 등 네 가지 형식으로 大別하였다.[63]

대학 변인 / 대학생 변인 / 정도		학문적 이상에의 동조·참여 정도	
		강	약
일반적 학창분위기에의 동조·참여 정도	강	학문중심 문화	교양중심 문화
	약	참여중심 문화	직업훈련중심 문화

60) Gordon, W.C., "The Social System of the High School," N.Y.: The Free Press, 1957.
61) Coleman, J.S., "The Adolescent Society," N.Y.: The Free Press, 1961.
62) Clark, B.R., "Educating the Expert Society," San Francisco : Chandler, 1962.
63) 尹駿相, "學生論," 吳基亨外, 教育學槪論, 서울 : 文音社, 1984, p.113.

첫째로, 教養中心 學生文化를 형성하고 있는 大學校 學生들은 大學教育이 지향하는 學問的 理想에의 동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특성을 보면, ① 학문활동보다는 각종 教養 및 集會活動에 집중적으로 參與한다. ② 이들은 학점 그 자체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탈락·낙제하지 않을 정도의 학점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③ 학점 때문에 大學生活을 망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이들 교양중심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④ 결국, 교수의 강의나 보고서 제출에 남다른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 강의에의 출석이나 보고서 제출을 반대하지는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⑤ 이들의 가정적 배경은 일반적으로 중·상류이며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지 않고 가정배경·분위기에 어울리는 대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한다. 결국 教養中心 文化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大學教育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단지, 점수·학점관리 때문에 大學生活을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주장할 뿐이다. 大學生活은 자기들이 一般成人社會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향연장과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參與中心의 학생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주체성 파악에 큰 신경을 집중시킨다. 이들은 대학이 주체적으로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의 현장을 구속하고 있는 현실적인 감각, 價値를 구체적으로 分析·提示해 주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현재의 대학은 대학생들에게 主體的인 삶, 현실의 감각을 제공하는데 둔감할 뿐이라고 판단되게 된다. 결국, 參與中心 文化圈의 대학생들에 의하면 대학당국은 끊임없이 비판, 점검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사회·정치적인 조건이 악화되면 될수록, 대학현장은 더욱 더 批判·不滿의 대상으로 지적되게 된다. 일반적인 속성을 보면, ① 參與中心 학생들은 현실을 理念的으로 探究하려 한다. 政治·社會的인 信條에 있어서 급진적이어서 社會·心理的으로 여타 학생들과 고립적인 교제를 갖는다. 따라서 學校·社會·政治的 현실은 이들에게 언제나 불만, 부조리 투성이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된다. ② 이들은 저항심이 강하여 기존적인 것으로부터의 억압, 간섭을 필요 이상으로 거부·비판한다. ③ 이들은 成人世界의 政治, 文化, 藝術的인 특정·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④ 일반적으로 參與中心文化를 형성하고 있는 大學生들은 人文·社會科學 분야의 전공과목 이수자들이다. ⑤ 이들은 대학생 全體 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소수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이 展開하는 討論의 主題는 社會·政治的으로 독특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결국, 參與中心 學生文化는 소수의 대학생들에 의해 독특한 양식으로 大學社會에 존재하게 되며, 이들은 中世紀的인 大學의 理想에 本質的으로 동조한다. 따라서 경직화되어 가는 現實的인 大學教育, 社會現實에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세째로, 職業訓練中心 學生文化에 속해 있는 大學生들은 大學教育의 役割을 단순히 직업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知識과 技術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기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學問의 精神, 教養, 知性 등은 大學教育을 소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적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학문의 목적에서 강조하지 않고 취직을 위한

준비처로서 도서관을 찾는다. 학생들 사이의 교제 및 課外活動에 큰 신경을 쏟지도 않으며, 大學 教育課程에도 커다란 관심이 없고 다만 졸업 후 어떤 職業世界에 진출할 것인가에 큰 신경을 집중시킨다.

끝으로 學問中心 文化를 형성하고 있는 大學生들은 大學의 理想을 보수적으로 持續·維持하려는 문화이다. 이들은 대학의 理想으로 學問추구와 學究的 분위기를 위해 그 조성에 힘쓴다. 이들의 속성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教授는 知性을 대표하며, 따라서 이들은 教授와의 知性的 一體感을 맛보려고 한다. ② 일반적으로 이들은 교수가 요구하는 讀書量과 課題物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좋은 학점을 얻고 있는 편이다. ③ 이들은 새로운 知識에 대해 끊임없이 論議·探究하려고 한다. 따라서 圖書館, 會議室, 實驗室 등은 이들의 知識探究의 요람으로 간주된다. ④ 이들은 대학의 理想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대학당국에 知的 雰圍氣를 요구하고 아울러 대학당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이다. ⑤ 이들은 教授 및 동료 학생들과 돈독한 精神的·知的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같은 동료·학생들과 끊임없는 지적인 경쟁관계를 유지시키기도 한다. ⑥ 이들은 大學院教育이 知性과 學問探究의 현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大學院에 진학하려고 한다. 결국 學問中心 文化圈의 大學生들은 大學院教育을 위한 學者的 소양을 大學教育을 통해 함양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와의 지성적 접촉을 통해 학문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大學教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게 된다.[64]

이상에서 살펴본 大學의 學生文化 類型에 대해 Coleman과 Gordon의 研究結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학교에는 學生文化가 實在하며, 둘째, 學生文化는 그 어떤 下位文化이든간에,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學校文化 및 規範과 葛藤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세째, 學問的 成就度보다는 非學業的 성향을 갖고 있는 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학생들이 갖게 될 학교안에서의 社會的 位置를 결정해 주는 要因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Turner는 學校環境이 學業의 適應·不適應의 영향적 측면에서 세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① 친구의 영향력이 굳이 학생들의 學業成就 노력을 감소시키지는 않으며, ② 학생들의 학업성취 저하라든가, 學校生活에 대한 不適應 현상 등은 보다 복잡한 社會的 環境과 직접·간접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었다. 다시 말해서, 學生文化를 制度的으로 學校現場에서 억제, 제거한다 해도 학생들의 學業成就가 일률적으로 向上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고, ③ 學生文化에 대한 학교당국의 부적절한 대처 및 대응책이 學校生活에 국한된 학생들의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擴大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65]

결국 學校라는 特殊的인 文化體制에서 모든 학생이 同一한 樣式으로 適應할 수는 없는 것이다. 適應의 정도와 속도는 個個人의 身體的·心理的 諸 條件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

64) 上揭書, pp.113~118.
65) 上揭書, pp.127~133.

러므로 精神的·知的 能力, 他人으로부터의 기대, 일상적 삶의 經驗的 차이 등이 學校文化體制에 대한 개인의 適應度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教師의 行動類型과 授業方式은 학생들의 學業成就에 많은 영향을 주게되는데 學校教育은 教師와 學生과의 人間關係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사가 어떠한 人間關係를 맺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學習效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단순히 教科內容 만을 매개로 하는 學習關係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心理的 유대를 가지게 되는데,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學習成就度와 興味·動機가 달라지는 것은 학생의 情意的·社會的 行動特性의 형성과 발달을 달리하게 된다.[66] Heil 과 그의 동료들[6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같은 類型의 學生도 어떤 類型의 교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學業成就度에 差異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教師의 能力의 우열과는 관계 없이 같은 類型의 학생인데도 교사의 類型에 따라서 學業成就度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변화가 교사 類型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教師의 人性이 학생의 學業成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사의 人性이 좋지 못한 까닭에 그 교사가 담당한 교과목까지 싫어지기도 한다.[68]

授業方式에 대해서 Rosenshine[69]과 Horwitz[70]는 傳統式 授業方式과 開放式 授業方式으로 나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傳統式 授業方式은 학문적인 면에 촛점을 맞추고 교사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이다. 그래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活動의 폭이 좁고 統制되며, 집단의 규모가 크고 주로 구체적인 지식을 다룬다. 반면에 開放式 授業方式은 공간의 이용이 자유롭고 학생의 活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學習資料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보다 소집단 내지 個別的인 수업방식이다. 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 스스로가 發見하고 討議하는 授業方式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授業方式의 效果性은 배우는 학생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Wright 와 Ducette 는 成功이나 失敗를 內的 要因으로 知覺하는 학생은 지시적·전통적 수업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 수업에서 더 성취가 높고, 外的 要因으로 知覺하는 학생은 개방적 수업에서와 같이 指示的·傳統的 授業에서도 비슷하게 성취하였다.[71] 따라서 指示的 授業의 효과성은 학생의

66) 朴容憲, "學校社會," 서울: 培英社, 1969, p.109.

67) Gronbach, L.J., "Educational Psychology," Second ed.,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p.523~525.

68) 鄭植永, "學習指導," 서울: 載東文化社, 1972, p.100.

69) Rosenshine, B.V., "Content, Time and Direct Instruction," P.L. Peterson, H.J. Walberg (ed.) *Research on Teaching: Concepts, Findings and Implications*, Barkeley, California: McCutchan,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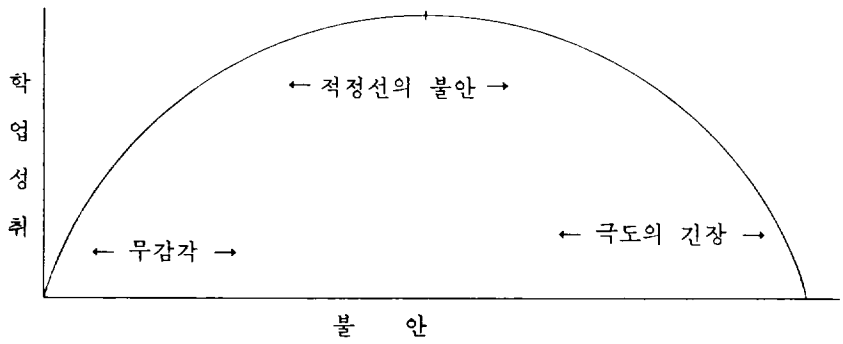
70) Horwits, R.A.,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Open Classroom," *Review of Edual Research* 49(1), 1979, pp.71~85.

71) Peterson, P.L., "Direct Instruction: Effect for What and for whom?," H.F. Clarizio (ed.) *Contemporary Issues in Edual Psychology*, Boston: Allyn & Bacon, Inc., 1981, p.147.

개인적인 統制意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環境的 側面과 관련하여 간접적 요인으로 作用하는 評價體制는 學業不適應을 유발케 하는 要因으로 作用한다.

評價體制가 學習者의 學習動機를 유발케 하고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은 상당히 보편화된 견해이다.[72] 評價體制가 學習動機를 유발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論理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받거나 또는 시험에 임박하면 학습자에게는 失敗에 대한 不安感이 발생한다. 이 不安感은 대부분의 學習者에게는 상당한 불쾌의 감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안감 또는 불쾌감은 그것을 해소시키려는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여기서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반응은 물론 학습에 열중하는 반응이다. 그러나 학습에 열중했으나 좋지 못한 結果를 가져왔거나, 노력의 결여, 또는 시험공부 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계속 실패할 경우 不適應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試驗이나 課題의 빈도나 그 難易度 정도에 따라 不適應을 유발케 되는데 그림[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適正水準의 試驗에 의한 압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適正水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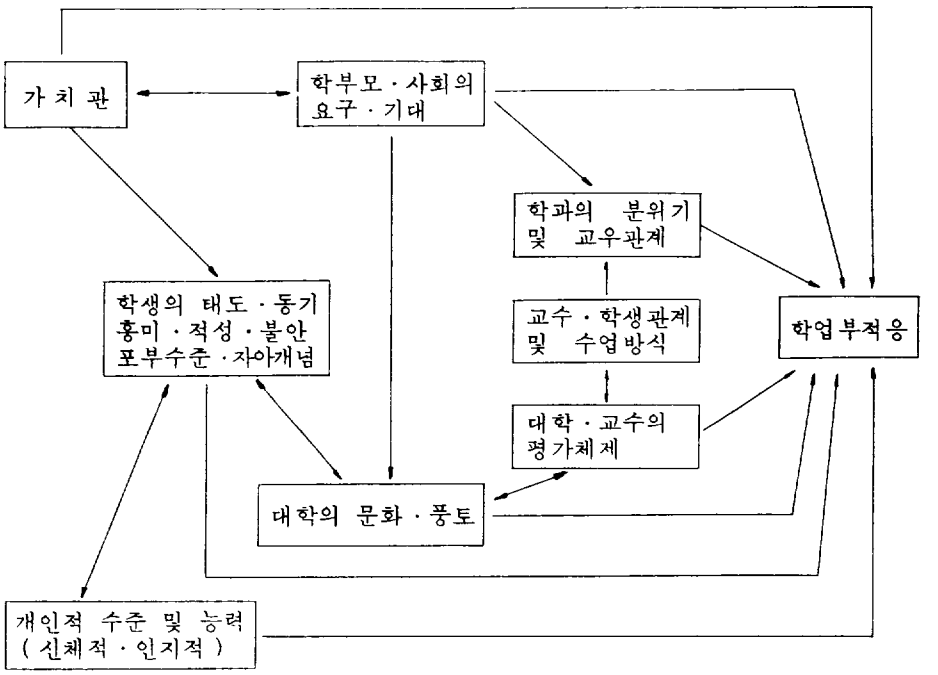


의 긴장과 불안을 유발케 하여 學業成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시험에 의한 壓力이 너무 커지거나 빈번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慣性的인 不安의 지속상태로 몰고가서 오히려 學業成就의 정도를 저하하게 되어 學業不適應을 가져오게 된다.

이상에서 論議한 學業不適應의 要因들을 綜合的으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72) Cook, W. W., "The Functions of Measurement in the Facilitation of Learning," E. F. Lindquist (ed.), *Educational Measurement*,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f Education, 1951, pp. 3~46.

73) 金豪權, "評價體制와 學業成就," 鄭範謨·李星珍, 前揭書, p.246.



Ⅲ. 硏究方法 및 節次

1. 硏究對象 標集

本校에 在學하고 있는 學生 중에서 학업성적이 優秀한 학생과 학업성적이 不振한 학생으로 區別하여 두 集團으로 나누었다. 이 나눠진 집단에서 '86 년 제 1 학기 성적 評點平均點數 (G.P.A.) 3.75 (B^{+}) 이상인 학생을 上位集團으로 하고 G.P.A. 1.7 (C^{-}) 이하인 학생과 "F" 학점 취득자로 이미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학사경고 대상의 학생을 포함해서 이들을 下位集團 학생으로 정했다.

이 두 集團은 학과, 학년, 대학의 分布配率을 감안해서 類層無選標集 (stratified random sampling) 으로 上·下位 各 集團別 350 名씩 700 명 학생을 標集對象으로 하여 '86.10월 반신 봉투와 함께 設問紙를 郵送하였다. 應信해 준 학생은 上位集團 149 명, 下位集團 152 명, 都合 301 名으로 최종 이들의 응답내용을 資料로 한 것이다.

2. 調査道具

學業成績과 관계되는 自我槪念 (8 문항), 學習動機 (7 문항), 學習技術 (8 문항), 學習

態度(7문항), 教授方法(8문항), 適性 및 能力(7문항), 人間關係(6문항), 教育環境(8문항) 等 8個 要因에 전체 60問項의 設問紙를 작성하였다(附錄參照). 各 要因別 問項의 작성은 李炯得(啓明大), 李熙道, 金慶麟(이상 慶北大) 等이 이미 작성 報告한 設問內容을 本校의 學生에 適合하도록 再改編하여 調査道具로써 利用하였다.

3. 資料處理 및 分析

수합된 設問資料는 本校 電算硏究所에 의뢰하여 電算統計處理하였으며 각 문항별로는 x^2 檢定을 하여 集團간의 有意性을 調査 分析하였다.

6～8개씩의 下位領域의 문항을 묶은 8個 要因은 각 요인별로 t 검정을 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응답내용의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단계 응답을 바람직한 順으로 4,3,2,1의 무게를 주었으며 다만 否定的 質問인 경우 逆算處理했다.

4. 硏究의 制限點

1) 設問調査에서 成績下位集團의 標集이 노출되면 오히려 否定的 逆效果를 낳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들에 대한 設問調査는 愼重을 기했으며, 郵送한 設問紙의 회수율이 낮아서 부득이 標集學生의 數가 계획보다 적었다.

2) 當初 學業不適應에 대한 硏究를 上·下位集團의 比較 外에도 性別, 學年別, 系列別까지도 포함해서 計劃했었으나 枝葉的인 內容이 방대하기 쉽고, 主題의 核心이 모호하기 쉬울 것 같아서 主로 上·下位集團에만 比重을 두어 比較할 수 밖에 없었다.

Ⅳ. 結果 및 解釋

1. 各 問項別 上·下位集團의 比較

A') 自我槪念 問項과 反應

Caplin[74] 과 Fullerton[75] 은 自我槪念을 自我에 관한 知覺現象이라고 했으며 이는 學業에 있어서의 成就度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自我에 관한 설명은 여러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74) Caplin, M.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J. Experimental Educat., 1969, 37,3,13～16.

75) Fullerton, S., Self-concept changes of junior high student, G. Counseling Psychol., 1973, 20,5, 493～494.

있겠으나 여기서는 "현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實際的인 自我側面에 더욱 觀點을 두어서 그의 下部領域이라고 볼 수 있는 8個 問項을 設定하여 上·下位集團間에 그 反應을 比較해 보았다.

우선 첫째 학생들이 濟州大學生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느끼는가를 물어보았다. 表〈A-1〉에 의하면 下位集團의 경우 上位集團學生들에 비해 제주대학생으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적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는 이들에 주어진 質問으로 現在 보람된 것에 열중하면 未來가 希望的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있어서도 表〈A-2〉에서처럼 未來가 希望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上位集團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反面에 下位集團學生들은 희망적이라는 생각에 다소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첨언하면 어느 한 개인이 미래에 기대하는 바 크고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더할수록 오늘을 살아가는데 더욱 열중하게 되고 애써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實現傾向性의 동기적 觀點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확고한 自我槪念의 發達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풀이되게 한다.

表〈A-1〉, 제대생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집단별 \ 응답내용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42 (28.2)	69 (46.3)	32 (21.5)	6 (4.0)	149
하 위 집 단	13 (8.6)	24 (15.8)	89 (58.6)	26 (17.1)	152
계	55	93	121	32	301

$x^2 = 76.39$, $d \cdot f$: 3, $P < .005$

表〈A-2〉, 현재 보람된 것에 열중하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보는가?

집단별 \ 응답내용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72 (48.3)	66 (44.3)	8 (5.4)	3 (2.0)	149
하 위 집 단	23 (15.1)	20 (13.2)	96 (63.2)	13 (8.6)	152
계	95	86	104	16	301

$x^2 = 130.57$ $d \cdot f$: 3 $P < .005$

다음 질문에서는 자신이 大學生活을 하는 目的과 重要한 基準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려고 했다. 表〈 A－3 〉을 보면 上·下位集團間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有意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下位集團학생인 경우 어떻게든 大學生活을 즐기면서 卒業만하면 된다는 생각이 支配的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고 上位集團학생인 경우 大學生活은 학업성적을 높이면서 보다 보람있는 생활이 영위되어야 한다는 소위 바람직하고 충실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질문 4 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表〈 A－4 〉에서 보면 下位集團의 학생인 경우 자신이 소속된 學科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별 價値가 없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反應結果에 대한 原因의 究明에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겠으나 大學入學 당시 학과를 선택한 동기에서도 그 原因을 찾을 수 있게 한다. 大學入學에 있어 現行의 先試驗,後志願 大入制度 以來 自己의 適性이나 將來性을 考慮함이 없이 "우선 붙고보자"는 생각에서 大學에 入學한 학생들이 下位集團에서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면 下位集團學生들

表〈 A－3 〉,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생활을 즐기며 졸업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보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9 (6.0)	13 (8.7)	126 (84.6)	149
하 위 집 단	29 (19.1)	89 (58.6)	17 (11.2)	17 (11.2)	152
계	30	98	30	143	301

$x^2 = 175.04$　　$d \cdot f$: 3　　$P < .005$

表〈 A－4 〉,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0 (0.0)	8 (5.4)	33 (22.1)	108 (72.5)	149
하 위 집 단	3 (2.0)	104 (68.4)	22 (14.5)	23 (15.1)	152
계	3	112	55	131	301

$x^2 = 142.62$　　$d \cdot f$: 3　　$P < .005$

이 自身의 學科에서 배우고 있는 敎科目에 興味와 價値를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능히 간주되게 한다.

質問"5"에서는 敎育에 投入하는 時間과 努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集團間에 비교하여 보았다. 表〈A－5〉에 나타낸 바와 같이 下位集團인 경우 교육에 투입되는 時間과 努力에 다소 회의를 가지는 편인가 하면 上位集團인 경우 自身의 교육에 투입하는 時間과 努力은 매우 價値있는 것으로 확고히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學業不適應의 根源的 要因에서 言及한 것처럼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 가장 重要한 것은 오로지 부지런히 工夫하는 길이다. 그러나 表〈A－6〉에서 보면 부지런히 공부해도 남들처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下位集團에서 60%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專門的이고 水準높은 大學敎育이 自身의 기초能力이나 現水準에서의 受容力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大學은 교육목적에도 있듯이 學問과 人格을 닦는 곳이다. 특히 人格을 닦기 위해서는 學問活動도 重要하지만 敎養

表〈A－5〉, 자신의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회의를 느끼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4 (2.7)	41 (27.5)	103 (69.1)	149
하 위 집 단	3 (2.0)	101 (66.4)	21 (13.8)	27 (17.8)	152
계	4	105	62	130	301

$x^2 = 141.47$ $d \cdot f$: 3 $P < .005$

表〈A－6〉, 부지런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01 (67.8)	45 (30.2)	2 (1.3)	1 (0.7)	149
하 위 집 단	34 (22.4)	24 (15.8)	90 (59.2)	4 (2.6)	152
계	135	69	92	5	301

$x^2 = 125.59$ $d \cdot f$: 3 $P < .005$

活動, 서어클活動 等에 參與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學問活動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重要한가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上·下位集團 間에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A-7〉에서 보면 下位集團 學生일수록 서어클 活動이나 其他 교양활동을 重視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上位集團에 있어서는 서어클 등 課外活動보다는 學問活動을 더 重視하는 것으로 反應하고 있다.

다음은 자아개념의 마지막 問項으로 學校에서 空講시간에 혼자서만 공부하는 것을 남들에게서 미움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質問이다. 이러한 질문은 사람이 평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어떤 指向性을 지녔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도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內部指向的인 사람은 자기판단, 자기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기 쉽다. 그러나 外部指向的인 사람일수록 남의 期待, 남의 保護, 남의 사랑에서 벗어날 것이 두려워서, 다시말하면 自己本位가 아니라 항상 남을 意識하며 행동한다고 說明할 수 있다. 表〈A-8〉에 의하면 下位集

表〈A-7〉, 학문활동보다도 교양활동, 서어클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 아닌가?

집단별 \ 응답내용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16 (10.7)	71 (47.7)	61 (40.9)	149
하 위 집 단	5 (3.3)	114 (75.0)	24 (15.8)	9 (5.9)	152
계	6	130	95	70	301

$x^2 = 138.40$ $d \cdot f$: 3 $P < .005$

表〈A-8〉, 공강시간에 자기만이 교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미움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집단별 \ 응답내용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 (1.3)	32 (21.5)	48 (32.2)	67 (45.0)	149
하 위 집 단	23 (15.1)	85 (55.9)	20 (13.2)	24 (15.8)	152
계	25	117	68	91	301

$x^2 = 73.47$ $d \cdot f$: 3 $P < .005$

團의 많은 學生들이 남들 앞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미움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學業의 成就나 그外 일상 生活面까지 영향을 끼쳐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해석을 하게끔 한다.

B) 學習動機 問項과 그 反應

學習動機가 學業成就 또는 學業不適應과 얼마나 관계되고 있는가. 특히 本校에 在學하고 있는 學生 中 學業成績의 上·下位集團 間에 그 差異는 無意한가 또는 有意한가를 本 要因에서는 7個問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질문으로 卒業後의 目的意識과 現在의 學習意慾을 關係지어 提示한 問項이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大學을 卒業한 후 자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촛점을 맞추어 오늘을 準備할 것인가는 現在의 學習에 重要한 動機가 부여된다고 본다. 바꿔말하면 目標意識이 不確實하면 學習意慾을 잃게 한다고 볼 수 있다. 表〈 B－1 〉에 의하면 上·下位集團의 많은 학생들이 졸업후 뚜렷한 目標意識이 없기 때문에 學習에 精勵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더우기 上·下位集團을 比較하면 下位集團 學生들이 上位集團 學生에 比해 뚜렷하지 못한 目標意識 때문에 학습의욕이 매우 저조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와같이 목표의식의 불확실성 때문에 야기되는 고민이나 문제들은 大學教育의 次元에서 포부수준의 허약이나 無力感 等으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社會의 就業難, 地方大學生으로서의 劣等感 등 어느 특정 세대나 집단만의 苦惱이 아니라 범국가적 次元에서 共通의 관심사로 풀어나가야 할 課題라고 提言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目標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더구나 興味와 價値를 잃을 때 거기에는 關心과 意慾은 적을 수 밖에 없다. 表〈 B－2 〉에 의하면 興味와 價値가 없다고 생각하는 學生들이 下位集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고 있으며, 또한 大學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卒業 後의 生活에 크게 도움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表〈 B－3 〉에 따르면 下位集團의 많은 학생들이 大學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이 卒業 後 크

表〈 B－1 〉, 졸업후의 목표의식이 불확실하여 학습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65 (43.6)	67 (45.0)	14 (9.4)	149
하 위 집 단	39 (25.7)	101 (66.4)	7 (4.6)	5 (3.3)	152
계	42	166	74	19	301

$x^2 = 91.55$　　$d \cdot f$: 3　　$P < .005$

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否定的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正常的인 大學教育을 위해 또 하나의 課題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表〈 B-2 〉, 흥미와 가치가 없는 학과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34 (22.8)	67 (45.0)	45 (30.2)	149
하 위 집 단	62 (40.8)	65 (42.8)	11 (7.2)	14 (9.2)	152
계	65	99	78	59	301

$x^2 = 119.73$ $d \cdot f$: 3 $P < .005$

表〈 B-3 〉,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졸업후의 생활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9 (19.5)	91 (61.1)	25 (16.8)	4 (2.7)	149
하 위 집 단	7 (4.6)	28 (18.4)	114 (75.0)	3 (2.0)	152
계	36	119	139	7	301

$x^2 = 103.90$ $d \cdot f$: 3 $P < .005$

우리 주위에는 大學을 안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쩌면 大學을 나온 사람보다 더 알차게 보람을 찾으며 또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大學生으로서의 價値基準形成이 됐음인지 表〈 B - 4 〉에서처럼 두 集團 대부분의 학생들이 大學을 도중에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다만 下位集團 學生들이 上位集團 학생보다 大學을 中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소 많게 가질 뿐이다. 또한 우리 주위 친척이나 친지가운데는 學業을 成就하여 尊敬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주 想起될 때 學習者 自身은 스스로를 再照明·位相하게 되고 學究에 대한 熱度를 더욱 크게 자극할 것이다. 表〈 B - 5 〉에서 보면 下位集團 학생들보다 上位集團 學生들이 그의 주위에서 尊敬心으로 상기되는 분을 본받아 學習動機 誘發에

表〈 B－4 〉, 대학 안나온 사람의 알찬 사회생활을 보며 대학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여 보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20 (13.4)	85 (57.0)	43 (28.9)	149
하 위 집 단	8 (5.3)	51 (33.6)	81 (53.3)	12 (7.9)	152
계	9	71	166	55	301

$x^2 = 36.52$ $d \cdot f$: 3 $P < .005$

表〈 B－5 〉, 자기 주위에 학업을 성취하여 존경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2 (21.5)	90 (60.4)	22 (14.8)	5 (3.4)	149
하 위 집 단	20 (13.2)	20 (13.2)	104 (68.4)	8 (5.3)	152
계	52	110	126	13	301

$x^2 = 101.35$ $d \cdot f$: 3 $P < .005$

크게 도움되는 것으로 유추케 한다. 그 外 學習動機 誘發은 成功한 大學의 先輩나 경험과 識見이 높은 名聲있는 사람의 特別講座에서도 크게 影響을 받은 것이다. 表〈 B－6 〉에서 보면 上位集團 學生들이 下位集團 學生들보다도 特別講座를 비교적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어서 大學教育에 特別講座의 開設이나 著名人士의 招請講演 等은 計劃的으로 實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學習動機 誘發의 마지막 設問으로 關係機關이나 關聯業體의 見學 또는 現場實習經驗 等이 學習動機 誘發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上·下位集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表〈 B－7 〉에서와 같이 上位集團 學生의 경우 下位集團 學生들보다 見學이나 現場實習의 經驗은 學習意慾을 매우 높게 북돋워주고 있는 것으로 反應하고 있다.

表〈 B-6 〉, 선배 또는 명성이 나 있는 분의 특별강좌를 듣고 싶어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49 (32.9)	74 (49.7)	23 (15.4)	3 (2.0)	149
하 위 집 단	15 (9.9)	51 (33.6)	82 (53.9)	4 (2.6)	152
계	64	125	105	7	301

$x^2 = 55.56$ $d \cdot f$: 3 $P < .005$

表〈 B-7 〉, 견학 또는 현장실습이 학습의욕을 북돋워 주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6 (17.4)	95 (63.8)	23 (15.4)	5 (3.4)	149
하 위 집 단	20 (13.2)	17 (11.2)	109 (71.7)	6 (3.9)	152
계	46	112	132	11	301

$x^2 = 111.20$ $d \cdot f$: 3 $P < .005$

C) 學習技術 問項과 그 反應

學習方法의 한 領域으로서 學習技術은 學業成就에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같은 環境, 같은 條件에서 學習技術의 良, 否는 學業成就의 良, 否를 決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領域의 첫째 질문으로 學習者가 무엇을 읽을 때 읽고 있는 單元의 題目이나 例題를 먼저 훑어보고 本文을 읽으면 學習單元의 理解가 훨씬 빠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提示한 質問이다. 表〈C-1〉에 의하면 上位集團 學生들은 本文을 읽기 前에 單元의 題目이나 예제를 충분히 吟味한 다음 本文을 읽기 시작하는 학생이 90% 이상이 되는 反面에 下位集團 학생들은 불과 25%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上·下位集團 間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에 읽는 內容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책을 읽는다면 學習效果가 적을 것은 당연하다. 表〈C-2〉에 의하면 上·下位

表〈 C-1 〉, 단원의 제목을 이해함이 없이 본문부터 읽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10 (6.7)	50 (33.6)	88 (59.1)	149
하 위 집 단	6 (3.9)	108 (71.1)	21 (13.8)	17 (11.2)	152
계	7	118	71	105	301

$x^2 = 144.80$ $d \cdot f$: 3 $P < .005$

表〈 C-2 〉,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과 관계없는 생각을 자주 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 (1.3)	39 (26.2)	95 (63.8)	13 (8.7)	149
하 위 집 단	27 (17.8)	98 (64.5)	21 (13.8)	6 (3.9)	152
계	29	137	116	19	301

$x^2 = 96.72$ $d \cdot f$: 3 $P < .005$

集團 間에 현저한 對照를 보이고 있으며, 책이나 論文을 읽을 때에 흔히 숫자, 圖表, 그래프 등을 等閑視하기 쉽다. 특히 그래프나 도표 등은 文字로써 장황한 說明을 要하는 것을 간편하고 명료하게 대신할 수 있으며 單元의 깊은 內容을 쉽게 理解되게 하고 오래 기억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되는 것이다. 表〈C-3〉에 의하면 下位集團 學生들은 숫자, 도표, 그래프 등을 비교적 등한시하고 있고 上位集團 學生들은 이를 더욱 重視하는 경향임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또한 大學에서 배우고 있는 教科에 대한 試驗을 치르는 目的은 그 教科學習의 達成度를 測定하려는 데 重要한 目的이 있다 하겠으나 試驗을 치는 學生들의 입장에선 그 目的과는 다소 판이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評價하는 자체가 學習改善, 教育反省의 教育的 資料보다 學生에 대한 大學生活의 全般을 평가하는 기록이 되고 각종의 심한 경쟁에서 승부를 가리는 尺度가 된다는 면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을 잘 치러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最善의 方法을 전부 동

表〈 C-3 〉, 책이나 논문을 읽을 때 숫자, 그래프, 도표 등을 등한시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42 (28.2)	80 (53.7)	26 (17.4)	149
하 위 집 단	4 (2.6)	125 (82.2)	20 (13.2)	3 (2.0)	152
계	5	167	100	29	301

$x^2 = 97.27$ $d \cdot f$: 3 $P < .005$

원하게 마련이다. 특히 평소 교과에 대한 根本的인 理解와 복습이 잘 안된 學生들은 우선 試驗은 無難히 넘겨야 하겠기에 公式·定義 또는 法則 등을 理解함이 없이 暗記해서라도 시험에 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內容의 質問에 있어서 表〈C-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位集團 學生에 비하면 下位集團 학생들은 시험공부할 때 공식·정의·법칙 등을 이해함이 없이 암기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같은 領域의 設問으로 배운 것을 항상 복습하고 배울 것을 미리 豫習하는가라는 質問에 있어서는 表〈C-5〉와 같이 上·下位集團 모두가 50 % 이상의 학생이 복습과 예습을 하지 않은 편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下位集團의 학생들이 복습과 예습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試驗工夫를 하는 方略에 있어서도 시험시간표가 發表된 후에야 비로소 시험

表〈 C-4 〉, 시험공부를 할 때 공식, 정의, 법칙 등을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34 (22.8)	96 (64.4)	18 (12.1)	149
하 위 집 단	35 (23.0)	99 (65.1)	13 (8.6)	5 (3.3)	152
계	36	133	109	23	301

$x^2 = 134.41$ $d \cdot f$: 3 $P < .005$

表〈 C-5 〉, 복습과 예습을 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3 (8.7)	52 (34.9)	67 (45.0)	17 (11.4)	149
하 위 집 단	1 (0.7)	7 (4.6)	107 (70.4)	37 (24.3)	152
계	14	59	174	54	301

$x^2 = 61.18$ $d \cdot f$: 3 $P < .005$

공부를 하는 學生이 下位集團에서가 많고, 上位集團인 경우 85 % 以上의 學生이 시험시간표를 發表하기 전부터 시험공부를 하고 있음을 表〈C-6〉에서 보여주고 있다.

表〈 C-6 〉, 시험공부는 시험시간표 발표한 후에야 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34 (22.8)	101 (67.8)	11 (7.4)	149
하 위 집 단	61 (40.1)	68 (44.7)	18 (11.8)	5 (3.3)	152
계	64	102	119	16	301

$x^2 = 124.01$ $d \cdot f$: 3 $P < .005$

보통 講義時間에 學生들의 質問이 많다는 것은 배우고 있는 課題나 單元에 대한 關心이 많은 증거이며 또한 理解하려는 慾求가 많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는 反對로 강의시간에 質問이 없다는 것은 理解가 充分하여 질문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關心과 慾求가 적었을 때 質問은 없기 쉽다. 더우기 강의내용이 무엇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때 질문은 전연 없는 것이다. 表〈C-7〉에서 보면 下位集團의 90 %에 상당하는 學生들이 강의시간에 質問을 아니하고 있음에 비해 60 %의 上位集團 學生들은 質問을 하거나 參考書를 들추며 의문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강의하는 내용을 되도록 선명하게 노트해 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후에 다시 읽어 理解와 기억을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理解됨이 없이 노트했던 것이나 또는 선명치 않은 필체로 노트해뒀던 것은 다

表〈 C-7 〉, 학습시간에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88 (59.1)	50 (33.6)	8 (5.4)	149
하 위 집 단	2 (1.3)	16 (10.5)	73 (48.0)	61 (40.1)	152
계	5	104	123	69	301

$x^2 = 95.03$ $d \cdot f$: 3 $P < .005$

음에 다시 읽으려 할 때 더욱 理解가 어렵게 될 것이다. 表〈 C-8 〉에서 上·下位集團을 비교하여 보면 下位集團인 경우 80.4 %가 자기가 필기한 노트를 후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하고 있고 上位集團은 22.8 %의 학생들만이 理解하는 데 힘드는 편이라고 반응하고 있음을 보였다.

表〈 C-8 〉, 필기한 노트를 뒤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 (1.3)	32 (21.5)	95 (63.8)	20 (13.4)	149
하 위 집 단	6 (3.9)	122 (80.3)	21 (13.8)	3 (2.0)	152
계	8	154	116	23	301

$x^2 = 114.35$ $d \cdot f$: 3 $P < .005$

D) 學習態度 問項과 그 反應

學習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態度나 습관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학습자 個人에 따라 差異가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규칙적이고 건실한 學習態度는 學業을 成就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강의시간에 落書를 즐기거나 空想을 자주 한다면 講義內容에 집중력을 잃게 마련이다. 表〈D-1〉에서 보면 下位集團의 대부분의 學生들이 강의를 듣는 태도에 있어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上位集團의 學生들은 집중력을 갖고 受講에 임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따라서 책을 읽거나 그 外 학습을 할 때 부담없

表〈 D−1 〉, 강의시간에 낙서를 하거나 공상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0 (0.0)	28 (18.8)	94 (63.1)	27 (18.1)	149
하 위 집 단	6 (3.9)	128 (84.2)	12 (7.9)	6 (3.9)	152
계	6	156	106	33	301

$x^2 = 146.88$ $d \cdot f$: 3 $P < .005$

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함은 重要하다. 그러나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면 긴장이 해이되고 게으르기 쉽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누워서 책을 읽는다든지 의자에 늘어져 앉아 學習을 하는 따위는 그 效果面에서 옳다고 볼 수 없다. 表〈 D−2 〉에 의하면 下位集團의 학생들은 上位集團의 학생에 비해 학습하는 態度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에 배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리포트의 제출을 마지막 날까지 미루는 사례가 허다하다. 課題物이나 리포트 등은 미리 준비하여 충분한 時間을 갖고 검토하고 補完하고 다시 整理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급하게 제작하고 검토없이 제출되는 과제물들은 완벽할 수가 없으므로 評價에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表〈 D−3 〉에 의하면 下位集團 학생들이 上位集團 학생에 비해 제출할 리포트의 정리는 제출기간이 임박해서야 분주하게 처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最近 조용히 음악감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오히려 學習效果가 向上된다는 報告도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TV나 라디오 視聽에 흥취하면 學習時間의 절대時數가 不足하게 되고

表〈 D−2 〉, 누워서 또는 의자에 늘어져 앉아 책 읽기를 좋아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6 (4.0)	39 (26.2)	82 (55.0)	22 (14.8)	149
하 위 집 단	12 (7.9)	118 (77.6)	18 (11.8)	4 (2.6)	152
계	18	157	100	26	301

$x^2 = 95.15$ $d \cdot f$: 3 $P < .005$

表〈 D-3 〉, 과제물이나 리포트를 마지막날까지 미루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4 (2.7)	35 (23.5)	65 (43.6)	45 (30.2)	149
하 위 집 단	41 (27.0)	96 (63.2)	10 (6.6)	5 (3.3)	152
계	45	131	75	50	301

$x^2 = 131.14$ $d \cdot f$: 3 $P < .005$

學習에 집중력을 잃게 된다. 특히 人間의 能力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생각키에는 不可能한 것이고 學習에 연속성과 계열성이 단절될 때 그 效果는 적을 수 밖에 없다. 表〈 D-4 〉에서 두 集團의 경향을 비교하면 90 %의 下位集團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도 TV나 라디오를 즐겨 듣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무릇 대부분의 사람들은 興味가 있는 課業에는 열중하고 興味없는 것에는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흥미없는 과목을 계속 멀리하다 보면 점점 이해가 어렵게 되고 理解가 어려움으로 해서 점점 흥미와 의욕은 잃게 마련이다. 表〈 D-5 〉에서와 같이 下位集團의 학생들은 興味있는 과목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흥미없는 과목의 성적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게 한다. 따라서 강의를 철저히 받는 것은 成績向上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업시간에 지각을 다반사로 하거나 缺席을 해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學業成就度를 높이는 데 크게 지장을 招來할 것이다. 表〈 D-6 〉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늦거나 결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학생이 上位集團은 90 %에 이르고 있는데 下位集團은 23 %에 불과

表〈 D-4 〉,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시간을 많이 빼앗기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 (1.3)	40 (26.8)	93 (62.4)	14 (9.4)	149
하 위 집 단	17 (11.2)	120 (78.9)	14 (9.2)	1 (0.7)	152
계	19	160	107	55	301

$x^2 = 121.41$ $d \cdot f$: 3 $P < .005$

表〈 D-5 〉, 흥미있는 과목에의 치중으로 흥미없는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 (1.3)	29 (19.5)	95 (63.8)	23 (15.4)	149
하 위 집 단	8 (5.3)	128 (84.2)	14 (9.2)	2 (1.3)	152
계	10	157	109	25	301

$x^2 = 143.84$ $d \cdot f$: 3 $P < .005$

表〈 D-6 〉, 수업시간에 늦거나 결석을 해도 대수롭지 않다고 보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14 (9.4)	46 (30.9)	88 (59.1)	149
하 위 집 단	13 (8.6)	104 (68.4)	21 (13.8)	14 (9.2)	152
계	14	118	67	102	301

$x^2 = 141.92$ $d \cdot f$: 3 $P < .005$

하다. 바꿔 말하면 下位集團의 77 %에 달하는 學生들이 수업시간에 늦거나 결석을 해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아진다.

강의실의 즐겨찾는 座席을 보면 어느 한 학생의 學業水準을 짐작케 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視力, 聽力, 座高 등의 신체적인 여건은 예외이겠지만 一般的으로 강의내용의 理解에 自信이 없고 또는 學究慾이 不足할수록 뒷 座席을 즐겨찾는 예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無力感이나 압박감 등 心理的 작용이 學業을 더욱 不振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表〈D-7〉에서 集團間의 比較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表〈 D-7 〉, 수업시간에 앞좌석에 앉기를 좋아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7 (24.8)	74 (49.7)	37 (24.8)	1 (0.7)	149
하 위 집 단	6 (3.9)	15 (9.9)	74 (48.7)	57 (37.5)	152
계	43	89	111	58	301

$x^2 = 127.84$ $d \cdot f$: 3 $P < .005$

E) 教授方法 問項과 그 反應

教授는 專門的인 깊은 知識과 이를 전수시키는 훌륭한 教育技術이 兼備된 자라야 한다고 한다. 難解한 理論이나 技術을 혼자서 展開하는 사람은 知識人 또는 硏究家로서 滿足할 지 모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서 教授로서의 必要·充分條件은 못된다고 하겠다.

어느 한 集團의 教育을 위해서는 그들의 水準에 맞는 方法으로 제대로 理解시켜 주고 그 集團으로 하여금 더 깊고 새로운 知識을 導出할 수 있도록 誘導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教授는 平素 講義時間에 學生들의 理解能力과 學習하는 課題의 性格을 充分히 고려한 적절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適切한 授業이냐 아니냐의 판단基準은 質·量·時間, 資料, 理解度 等 관여基準이 많겠지만 理解度에 基準을 둘 때 학습하는 個人 또는 集團에 따라서는 見解를 달리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어느 한 교수가 같은 內容을 가지고 同一한 方法으로 가르친다고 했어도 理解가 안되는 學生에겐 적절한 수업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理解가 잘 되는 學生에겐 적절한 수업으로 느껴질 것이다. 表〈E-1〉에 의하면 下位集團의 대부분의 學生들은 적절한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上位集團의 學生들은 비교적 적절한 수업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本表의 반응을

表〈 E-1 〉, 학생의 이해능력과 학습과제의 성질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이 이뤄진다고 보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74 (49.7)	64 (43.0)	10 (6.7)	149
하 위 집 단	3 (2.0)	11 (7.2)	115 (75.7)	23 (15.1)	152
계	4	85	179	33	301

$x^2 = 67.32$ $d \cdot f$: 3 $P < .005$

확대 해석하여 보면 學習者는 大學課程을 밟고 있는 학력집단들이고 따라서 전공을 같이 하는 同質集團들이기 때문에 한 강의실에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모인 集團에서 수업의 質이나 方法에 대한 見解의 差를 넓히지 않고 이들 모두가"적절한 수업이다"라는 근사치로 接近시키려면 교수는 항상 學習課題의 성격과 이해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수업이 이뤄지도록 부단한 硏究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自省해 보기도 한다.

교수에 따라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강의의 요점을 적게하거나 油印物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만 講義할 題目 하나만을 내걸고 始終 얘기로만 강의를 끝내는 예도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강의내용에서 강화되는 부분이나 강의의 요점을 스스로 찾아 노트해야 한다. 학습자가 강의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더군다나 주의집중력이 없는 수강상태에서는 강의의 요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表〈 E-2 〉에 의하면 講義의 要點을 정리하는 데 上, 下集團에 매우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E-2 〉, 강의의 요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어려운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0 (0.0)	34 (22.8)	109 (73.2)	6 (4.0)	149
하 위 집 단	24 (15.8)	111 (73.0)	15 (9.9)	2 (1 3)	152
계	24	145	124	8	301

$x^2 = 138.13$ $d \cdot f$: 3 $P < .005$

學習의 效果는 敎師의 熱意에 比例한다고도 한다. 아무리 새롭고 깊은 知識도 쉽게 이해시키려고 부단히 애쓰면 이에 따라 그 效果는 다소라도 얻게 된다. 그런데 問題는 어느 한 교수의 열의를 얼마나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지는가에 관계가 깊다. 극히 否定的이고 等閑視한 생각으로 受講에 임하면 그 效果는 낮을 수가 있고 극히 肯定的이고 重大視한 생각으로 受講에 임하면 어느 敎科나 배우는 課題에 대한 理解度가 높고 빠를 수 있다고 한다. 表〈 E-3 〉에서와 같이 下位集團의 學生들은 그들에게 교수가 새롭고 깊은 지식을 보다 쉽게 전수시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짙다.

독일의 Werner Hofmann은 敎授의 類型을 勤勉한 手工業者型과 支配人格의 正敎授型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주단을 짜기 위해 실밥의 줄기마다를 꿰매나가듯 하는 오로지 강의와 연구에 충실한 교수들을 말하고 후자는 각 都市를 들락거리며 名聲을 퍼뜨리고 光彩를 발하는 데 분주한 교수들을 말한다고 한다. 最近들어 學問的 業績이나 社會活動을 通해 날

表〈 E-3 〉, 교수는 새롭고 깊은 지식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애쓰시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6 (4.0)	85 (57.0)	41 (27.5)	17 (11.4)	149
하 위 집 단	2 (1.3)	18 (11.8)	124 (81.6)	8 (5.3)	152
계	8	103	165	25	301

$x^2 = 90.55$ $d \cdot f$: 3 $P < .005$

로 명성이 나있는 교수들이 많다. 그러나 學生과 교수의 관계는 강의실에서 또는 研究室에서 學問을 같이하는 同伴者로 관계지을 때 평소 강의에 충실하고 학생을 깊이 理解하여주는 교수가 특히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더욱 바람직할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내용의 質問에서 반응을 보면 表〈 E-4 〉에서와 같이 下位集團 學生들은 명성이 있는 교수를 더욱 존경하고 있고 上位集團의 學生들은 강의에 충실한 교수를 더욱 선호하려는 경향은 특기할만한 반응이라고 여겨진다.

學點取得의 難易는 教科内容, 教授方法, 努力水準, 評價基準 等에 따라 多少 차이는 인정되나 大學教育課程에서 이수해야 할 대부분의 교과목은 열심히 공부해야 學點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예이다. 다시말하면 강의를 듣지 않고도 학점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 교육활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表〈 E-5 〉에서 보면 上·下位 集團은 서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전혀 그렇지않다」라고 確信하는 비율이 下位集團의 경우 7.9%에 비해 上位 集團은 24.2%로써 반응하고 있어서 上位集團 학생일수

表〈 E-4 〉, 강의에 충실한 교수보다 명성이 있는 분을 더 존경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 (1.3)	10 (6.7)	67 (45.0)	70 (47.0)	149
하 위 집 단	3 (2.0)	107 (70.4)	26 (17.1)	16 (10.5)	152
계	5	117	93	86	301

$x^2 = 132.58$ $d \cdot f$: 3 $P < .005$

表〈 E-5 〉, 강의를 열심히 듣지 않고도 학점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은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5 (3.4)	34 (22.8)	74 (49.7)	36 (24.2)	149
하 위 집 단	3 (2.0)	38 (25.0)	99 (65.1)	12 (7.9)	152
계	8	72	173	48	301

$x^2 = 16.30$ $d \cdot f$: 3 $P < .005$

록 大學의 어떤 敎科도 소홀함이 없이 겸허한 자세로 수강에 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여 본다.

따라서 本要因의 문항으로 수업분위기를 질문해 보았다. 講義時間은 和氣에 차 있으면서도 진지해야 하고 學生 모두가 활동하면서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수업내용, 수업기술, 심지어는 수업담당자의 억양, 품위 등 그 외의 여러 수업도구들과도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같은 교수의 강의시간임에도 學生의 內的 심상이나 이해능력에 따라 反應에 차이를 주는 때문인지 上·下位集團 간에는 表〈 E-6 〉에서처럼 「 비교적 그렇다 」와 「 비교적 그렇지 않다 」와의 사이에는 두 集團이 서로 相反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게 한다.

表〈 E-6 〉, 강의시간은 진지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8 (5.4)	104 (69.8)	34 (22.8)	3 (2.0)	149
하 위 집 단	2 (1.3)	22 (14.5)	122 (80.3)	6 (3.9)	152
계	10	126	156	9	301

$x^2 = 107.58$ $d \cdot f$: 3 $P < .005$

또한 모든 교수들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르칠 教科의 目的과 目標를 說明해주고 있다. 學生들의 理解가 充分하도록 明確한 說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學生들은 교과목의 목적과 목표의 설명을 통해서 重要性을 알게하고, 成就可能水準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하여 의욕을 갖고 成功的으로 그 教科를 履修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 問項에서는 學生들의 理解 側面에서 明確性 與否가 重要하겠는데 表〈 E-7 〉에 依하면 上位集團 學

表〈 E-7 〉, 강의과목의 목적과 목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77 (51.7)	59 (39.6)	10 (6.7)	149
하 위 집 단	2 (1.3)	27 (17.8)	118 (77.6)	5 (3.3)	152
계	5	104	177	15	301

$x^2 = 45.54$ $d \cdot f$: 3 $P < .005$

生들은 下位集團學生들에 비해 명확한 설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교수方法의 마지막 질문으로 학습현장이 얼마나 討論場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측정, 비교해 본 것이다. 學習의 주된 현장인 講義室은 많은 의문들이 提起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같이 제기된 의문들에는 서로가 主張을 달리할 수도 있고, 저마다 主張에 따른 관계자료를 찾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강의실은 때로는 험한 토론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학습으로서 서로 의문들을 풀고 理解를 돕구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다. 그러나 表〈 E-8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두 集團 모두가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學習을 위한 토론을 하지않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만 上位集團 學生들이 서로의 주장을 펴며 다소의 토론이 있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授業의 形態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교수는 강의식 수업 일변도에서 지양하고 가끔 교수는 座長이 되어 일정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고 스스로 歸結짓도록 도와주는 수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본다.

表〈 E-8 〉, 학습과제에 대한 토론을 자주 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62 (41.6)	62 (41.6)	24 (16.1)	149
하 위 집 단	2 (1.3)	14 (9.2)	117 (77.0)	19 (22.5)	152
계	3	76	179	43	301

$x^2 = 48.10$ $d \cdot f$: 3 $P < .005$

F) 適性 및 能力에 關한 問項과 反應

어떠한 일에 한 個人이 지니고 있는 適性의 與否, 또는 個人이 다져온 能力의 有無 等은 學業成就 與否에 크게 관계된다고 한다. 앞서 이미 지적했듯이 先試驗 後志願制의 大入制度 이후 적성이나 흥미 또는 능력 등을 거의 무시한 채 大學에 입학한 學生들이 적지않게 있다. 轉科를 希望한다해도 卒業定員制 實施 이후 실제로 轉科가 거의 不可能하여 결국 適性과 能力이 못미치어 도중에 大學生活을 中斷하는 學生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도 있다.

表〈 F-1 〉에 의하면 下位集團 學生일수록 適性과 將來性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學科選擇을 한 學生들이 많은 반면에 上位集團 학생들은 비교적 적성과 장래성을 고려해서 學科를 선택한 것으로 反應하고 있다. '88 學年度부터 先志願, 後試驗 制로의 入試改革과 卒業定員制의 점진적 해소는 本項의 問題를 多少나마 해결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

表〈 F-1 〉, 학과 선택시 적성과 장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43 (28.9)	63 (42.3)	29 (19.5)	14 (9.4)	149
하 위 집 단	12 (7.9)	25 (16.4)	65 (42.8)	50 (32.9)	152
계	55	88	94	64	301

$x^2 = 67.89$ $d \cdot f$: 3 $P < .005$

하게 한다.

本要因의 두번째 質問으로 본인들의 基本能力을 가늠해 보았다. 가장 適切한 方法을 써서 부지런히 공부해도 도무지 성적은 向上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個人이 처하고 있는 內的 環境과 能力에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表〈 F-2 〉에서 보면 下位集團 학생들은 80 % 이상되는 學生들이 부지런히 공부해도 성적은 향상되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고, 이러한 反面에 上位集團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지런히 공부할수록 성적은 向上된다고 반응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깊은 關心을 갖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기게 한다.

表〈 F-3 〉의 設問은 學習態度 要因의 表〈 D-3〉의 質問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 쉬우나 여기에서는 學生 個人이 갖고 있는 能力水準을 測定해보려는 意圖에서 質問한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下位集團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學校에서 주어지는 課題物의 處理나 리포트의 作

表〈 F-2 〉, 부지런히 공부해도 성적은 향상되지 않은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2 (1.3)	80 (53.7)	66 (44.3)	149
하 위 집 단	8 (5.3)	100 (75.8)	30 (19.7)	14 (9.2)	152
계	9	102	110	80	301

$x^2 = 156.11$ $d \cdot f$: 3 $P < .005$

表〈 F-3 〉, 과제물의 처리나 리포트 작성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24 (16.1)	104 (69.8)	18 (12.1)	149
하 위 집 단	33 (21.7)	80 (52.6)	24 (15.8)	15 (9.9)	152
계	36	104	128	33	301

$x^2 = 105.40$ $d \cdot f$: 3 $P < .005$

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上位位圖의 學生들은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역시 〈 F-4 〉의 問項에서는 適性이나 能力水準을 綜合하여 敎科의 難易度를 測定해 보는 문항으로서 下位集團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려운 것으로 반응하고 있고 上位集團의 學生들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表〈 F-4 〉, 배우는 교과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0 (0.0)	11 (7.4)	115 (77.2)	23 (15.4)	149
하 위 집 단	3 (2.0)	115 (75.7)	29 (19.1)	5 (3.3)	152
계	3	126	144	28	301

$x^2 = 151.75$ $d \cdot f$: 3 $P < .005$

다음은 紙筆을 통한 主觀式 평가 문제의 난이정도를 상·하위 집단간에 비교해 본 것이다. 지필을 통해서 學生들을 評價하는 方法에는 選多型, 單答型, 論述型 등이 있겠는데 選多型, 眞僞型 등의 客觀式 문제와는 달리 主觀式인 論文型 問題를 풀어가는 데는 그 問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머리 속에 問題의 핵심적인 答이 要約, 整理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출제된 問題의 答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료하고 構造있는 論法으로 일정의 時間內에 정수부분을 언급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출제된 문제를 볼 때 순간적인 재치보다는 깊이 생각하여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파지해야 되고, 이 把持된 생각을 組織的이며 論理的으로 展開하는 훈련이 쌓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정확한 實力과 訓練을 必要로 하는 論文型 問題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지않는 것으로 반응하겠지만 더우기 下位集團의 학생들이 論文型 문제는 정해진 시간내에 끝마치치 못하고 있다고 表〈 F-5 〉에서처럼 반응하고 있다.

表〈 F-6 〉의 質問은 適性의 한 下部領域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격의 일면을 學業成績과 연계시켜 본 것이다. 사람은 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이에 당황하거나 서두르기 쉽다. 또한 순간의 착각이 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本表의 질문처럼 시험문제를 주의깊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결국 틀렸던 경우가 있었음을 가끔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上位集團 학생들보다 下位集團 학생들에게서 많이 發見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表〈 F-5 〉, 논문형 문제를 풀때 정해진 시간내에 끝마치기 어려운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33 (22.1)	86 (57.7)	27 (18.1)	149
하 위 집 단	41 (27.0)	84 (55.3)	22 (14.5)	5 (3.3)	152
계	44	117	108	32	301

$x^2 = 108.08$ $d \cdot f$: 3 $P < .005$

表〈 F-6 〉, 시험문제를 주의깊게 읽지 않았으므로 아는 것도 틀렸던 경우가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5 (3.4)	34 (22.8)	83 (55.7)	27 (18.1)	149
하 위 집 단	4 (2.6)	124 (81.6)	20 (13.2)	4 (2.6)	152
계	9	158	103	31	301

$x^2 = 106.95$ $d \cdot f$: 3 $P < .005$

다음 項의 質問도 教授方法의 表〈E-2〉와 유사하게 느껴지나 여기서는 學生의 能力을 측정해 보는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가 힘든데다 강의의 요점을 정리하는 요령과 훈련에 익숙하지 못했을 때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필기하기란 힘들다. 表〈F-7〉에서 上·下位 集團을 비교해 보면 下位集團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내용을 요약해서 필기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上位集團의 학생들은 별로 힘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試驗問題가 出題되었을 적만해도 答을 쉽게 쓸수있는 사람과 답을 쉽게 쓸수없는 사람 사이에는 시험문제를 대하는 見解差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前者의 경우 講義內容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끼기 쉽고 後者의 경우는 的確한 問題가 出題되었다고 흐뭇해지기 쉽다.

表〈 F-7 〉, 강의내용의 요약이나 필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10 (6.7)	115 (77.2)	23 (15.4)	149
하 위 집 단	15 (9.9)	101 (66.4)	32 (21.1)	4 (2.6)	152
계	16	111	147	27	301

$x^2 = 147.07$ $d \cdot f$: 3 $P < .005$

表〈 F-8 〉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고 있다. 即 下位集團의 학생들은 강의내용에서 벗어난 소위 잘못 출제된 문제인양 느끼고 있고 上位集團의 학생들은 대개가 분명히 강의를 해줬던 문제라고 반응하고 있어서 이들은 평소 重要하다고 豫想했던 문제가 出題되었다는 적중감에 더욱 희열까지 느끼게 할 것이다.

表〈 F-8 〉, 출제된 시험문제가 강의내용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5 (3.4)	18 (12.1)	83 (55.7)	43 (28.9)	149
하 위 집 단	2 (1.3)	116 (76.3)	28 (18.4)	6 (3.9)	152
계	7	134	111	49	301

$x^2 = 128.13$ $d \cdot f$: 3 $P < .005$

G) 人間關係 問項과 그 反應

人間關係란 一定한 社會組織 內에서 人間 對 人間의 心理的 關係를 말하는 것으로서 敎授와 學生間, 또는 學生 서로 間에 원만한 人間關係의 形成은 和合의 狀態를 유지하게 하고 學業의 能率을 增進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人間關係가 원만하지 못하면 心理的으로 갈등이나 욕구좌절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학업에도 좋지 않은 影響을 줄 것으로 보아진다.

康[76]은 教授와 學生의 人間關係定立을 위한 硏究에서 學生들이 가장 選好하는 教授像은 학생들에 깊은 關心을 가져주는 教授라고 報告한 바 있고 대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問題는 누구보다도 우선 친구와 의논한다는 報告 등도 있다.

누구와도 어떤 조건이나 부담없이 對話할 수 있고 이러한 대화나 관심 속에 친밀감은 도타와지고 人間關係는 더욱 짙게 形成된다고 할 수 있다. 表〈 G-1 〉에서처럼 學業에 관해 교수님과 자주 의논하는가라는 質問에 "전적으로 의논한다"는 학생은 上位集團의 0.7%에에 불과하다. 「비교적 의논한다」는 학생이 하위집단 21.7%, 상위집단은 38.9%이다. 「별로 의논하지 않는 편인 학생이 下位集團 46.7%, 上位集團 42.3%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혀 의논하지 않는다는 學生은 上位集團 18.1%, 下位集團 31.6%로서 下位集團의 많은 學生들이 전혀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表〈 G-1 〉, 학업에 관해 교수님과 자주 의논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58 (38.9)	63 (42.3)	27 (18.1)	149
하 위 집 단	0 (0.0)	33 (21.7)	71 (46.7)	48 (31.6)	152
계	1	91	134	75	301

$x^2 = 14.19$ $d.f: 3$ $P < 0.01$

따라서 教授님은 學生의 興味와 慾求등에 關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서 上·下位集團의 많은 學生들이 關心을 적게 가져주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으나 다소의 上位集團 學生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편이라고 表〈 G-2 〉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슷한 質問으로 學生들은 自身의 性格, 進路, 環境 등에 대하여 교수님과 相談하는가라는 質問에는 表〈 G-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位集團의 많은 學生들이 自進 相談하고 있으며 下位集團 학생들은 相談을 비교적 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역시 人間關係의 한 領域으로 交友나 級友 또는 주위 어른으로부터 참된 충고와 진실한 助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았다. 이러한 質問 領域에서도 上位集團 學生들은 즐거이 받아들이고 있고 下位集團 學生들은 충고와 조언을 기피하는 것처럼 表〈 G-4 〉에서 보여

76) 康順善外, 教援-學生의 人間關係 定立에 關한 硏究, 濟州大, 學生生活硏究, 7, 1985, pp. 4 ~ 5.

表〈 G-2 〉, 교수님은 학생의 흥미, 욕구등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47 (31.5)	60 (40.3)	39 (26.2)	149
하 위 집 단	1 (0.7)	4 (2.6)	54 (35.5)	93 (61.2)	152
계	4	50	114	132	301

$x^2 = 59.63$ $d \cdot f$: 3 $P < .005$

表〈 G-3 〉, 성격, 진로, 환경등에 관하여 교수님과 상담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 (0.7)	70 (47.0)	44 (29.5)	34 (22.8)	149
하 위 집 단	0 (0.0)	5 (3.3)	116 (76.3)	31 (20.4)	152
계	1	75	160	65	301

$x^2 = 89.85$ $d \cdot f$: 3 $P < .005$

表〈 G-4 〉, 주위의 충고와 조언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6 (24.2)	93 (62.4)	18 (12.1)	2 (1.3)	149
하 위 집 단	8 (5.3)	32 (21.1)	111 (73.0)	1 (0.7)	152
계	44	125	129	3	301

$x^2 = 114.94$ $d \cdot f$: 3 $P < .005$

주고 있다.

人間關係 領域의 또 하나의 質問으로 學點과 관련시켜 敎授와의 人間關係를 추리하여 보았다.

學點은 學生 個人이 얼마만큼 공부했는가를 評價한 記錄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한 個人을 評價하는 단순한 資料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 분발을 촉구하는 目的이 더 크다. 따라서 錯誤가 없는 한 교수가 일부러 잘 나온 學點을 낮춰 기록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그럼에도 적은 學點을 받아든 學生은 그 責任을 自身에게 돌리기 전에 시험문제의 不當性이나 기록을 맡은 교수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쉽다. 쉽게 말해서 學點이 잘 안나왔기 때문에 공연히 교수를 미워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表〈 G-5 〉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 學點이 적게 나왔을 때 上·下位集團을 막론하고 교수님을 미워했던 경우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고 下位集團에서가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 공연한 노파심이길 바라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스승과 제자간에 신뢰가 없어지고, 人間關係가 불편하고, 教權이 喪失된다면 결코 안될 것이다. 더우기 學點을 잘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교수를 따라 受講申請하기를 즐긴다면 學生 스스로를 위해 지극히 不幸한 일이 아닐까 한다.

表〈 G-5 〉, 학점이 낮았을 때 그 교수님을 미워한 적이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4 (2.7)	35 (23.5)	86 (57.7)	24 (16.1)	149
하 위 집 단	36 (23.7)	89 (58.6)	19 (12.5)	8 (5.3)	152
계	40	124	105	32	301

$x^2 = 99.84$ $d \cdot f : 3$ $P < .005$

다음은 人間關係의 마지막 問項으로 級友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學生들은 평소 도서관이나 가정에서 과제물의 조사나 시험공부를 많이 한다. 특히 課題의 研究나 調査活動 等은 級友들과 같이 하면 能率的이고 效果的일 수도 있다. 試験工夫 역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로움이 많을 수 있다. 表〈 G-6 〉에 의하면 下位集團 학생들은 上位集團 학생들에 비해 과제물의 조사나 시험공부를 혼자서 많이 하는 편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學生일수록 급우 또는 친구사이의 人間關係 形成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學生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表〈 G－6 〉, 과제물의 조사와 시험공부를 친구와 같이 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83 (55.7)	43 (28.9)	20 (13.4)	149
하 위 집 단	5 (3.3)	23 (15.1)	115 (75.7)	9 (5.9)	152
계	8	106	158	29	301

$x^2 = 71.42$　　$d \cdot f$: 3　　$P < .005$

H) 環境的 要因과 그 反應

環境要因 中의 下位領域으로 大學의 文化, 傳統, 勉學分圍氣와 관련시켜 上·下位集團을 비교해 보았다. 表〈 H－1 〉에서 보는 것처럼 上位集團 學生들은 下位集團 학생들보다 학교 교문안에 들어서면 학습할 의욕이 우러나오는 편이라고 반응한 學生들이 많다. 한편 학습에 흥미와 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은 校門 안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苦役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될 수도 있다. 더구나 歷史와 傳統이 있는 先進大學에 비하면 本校는 아직 심오하고 아카데믹한 분위기에 이르기에는 역사가 짧다. 또한 정서적이면서 발랄한 분위기도 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學의 교문 안에 들어서면 大學의 상징인 고고한 「백록탑」과 웅장한 本館과 大學의 심장인 「中央圖書館」이 눈에 띈다. 講義室을 바쁘게 찾는 學生行列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눈에 뜨여 학습에의 자극이 있을법한데도, 더우기 目的意識을 갖고 校門 안에 들어선 學生들이 學習意慾이 조금도 우러나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앞으로 이들에 대한 關心이나 指導는 더욱 높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게 한다.

表〈 H－1 〉, 교문안에 들어서면 학습의욕이 우러나온다고 생각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 (1.3)	84 (56.4)	51 (34.2)	12 (8.1)	149
하 위 집 단	8 (5.3)	14 (9.2)	75 (49.3)	55 (36.2)	152
계	10	98	126	67	301

$x^2 = 85.74$　　$d \cdot f$: 3　　$P < .005$

따라서 大學生은 靑年期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이나 價置基準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보아진다. 다시말해서 외부의 간섭이나 지나친 保護로부터 벗어난 時期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學生의 신분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나 관심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다. 특히 學業에 대해 父母의 짙은 關心과 愛情은 學業을 成功的으로 成就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다. 表〈 H-2 〉에 의하면 上位集團 學生일수록 學業에 對해 부모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어서 本 問項도 역시 集團과의 差異가 충분히 있다고 입증되고 있다.

表〈 H-2 〉, 학업에 대해 학부모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2 (1.3)	17 (11.4)	80 (53.7)	50 (33.6)	149
하 위 집 단	4 (2.6)	110 (72.4)	17 (11.2)	21 (13.8)	152
계	6	127	97	71	301

$x^2 = 121.51$ $d \cdot f$: 3 $P < .005$

學生이 工夫할 수 있는 환경 중에서도 책이나 참고자료들을 비교적 쉽게 接할 수 있다면 그처럼 學業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은 없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는 한 학생의 意慾, 能力, 地理的 與件등에 따라 일정할 수는 없다. 表〈 H-3 〉에 따르면 두 集團의 많은 學生들이 書籍이나 參考資料들을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공부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고 있는 편이며, 더욱 下位集團에서가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表〈 H-3 〉, 책이나 참고자료를 얻기가 힘들므로 공부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편인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0 (6.7)	52 (34.9)	70 (47.0)	17 (11.4)	149
하 위 집 단	4 (2.6)	118 (77.6)	23 (15.1)	7 (4.6)	152
계	14	170	93	24	301

$x^2 = 56.08$ $d \cdot f$: 3 $P < .005$

以上의 外的 環境 뿐만아니라 自身의 內的 環境도 學業의 成就에는 關係가 있다. 특히 學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健康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없다. 肉體的 못지않게 精神的으로 더욱 건강해야 한다. 항상 불안을 느끼고,우울증세가 있고, 어떠한 일을 시작했으나 매듭도 짓기 전에 쉽게 싫증이 오는 그러한 學生들은 學業에 專念하고 또한 工夫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다. 表〈 H-4 〉에 의하면 두 集團의 대부분의 學生들이 이러한 心理現象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욱 下位集團에서가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부를 해야하는데도 자주 피곤을 느끼거나 잠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原因은 學習者가 학업 이외의 다른 일에 심히 종사한다든지 또는 긴장이 풀리고 오래전부터 배어온 습관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신체적으로 心理的으로 病的 증세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도 表〈 H-5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上位集團보다 下位集團에서가 더 높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H-4 〉, 불안, 우울, 싫증 등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9 (6.0)	62 (41.6)	71 (47.7)	7 (4.7)	149
하 위 집 단	12 (7.9)	130 (85.5)	10 (6.6)	0 (0.0)	152
계	21	192	81	7	301

$x^2 = 77.42$ $d \cdot f$: 3 $P < .005$

表〈 H-5 〉, 피곤하거나 잠이와서 공부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9 (6.0)	76 (51.0)	59 (39.0)	5 (3.4)	149
하 위 집 단	12 (7.9)	131 (86.2)	7 (4.6)	2 (1.3)	152
계	21	207	66	7	301

$x^2 = 57.27$ $d \cdot f$: 3 $P < .005$

다음에는 가정의 환경을 학업과 관련시켜 上·下位集團을 비교해 본 것이다. 많은 學生들이 집에서 차분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다가도 친구나 그 外 사람들이 집에 놀러와서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찾아드는 그 쪽의 책임보다 자제력과 통제력이 없는 자신의 쪽에 책임이 있으며 엄격하지 못한 家屋環境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表〈H-6〉에서 보면 上位集團보다 下位集團에서가 더 높게 影響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家庭環境의 일면으로서 공부하는 房의 內部와 房주위의 복잡한 환경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책상이 房門과 마주하고 있는지의 與否도 공부에 관계된다고 하는데 복잡하고 安定感이 없는 공부방의 분위기가 공부하는데 이로울 리 없다. 表〈H-7〉에 의하면 上位集團의 學生들보다 下位集團의 학생들이 공부방 주위의 複雜한 환경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表〈H-6〉, 친구나 사람들이 집에 자주 찾아와서 공부를 방해받을 때가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4 (2.7)	35 (23.5)	88 (59.1)	22 (14.8)	149
하 위 집 단	4 (2.6)	115 (75.7)	26 (17.1)	7 (4.6)	152
계	8	150	114	29	301

$x^2 = 84.12$ $d \cdot f$: 3 $P < .005$

表〈H-7〉, 공부방 주위의 복잡한 환경으로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3 (2.0)	35 (23.5)	89 (59.7)	22 (14.8)	149
하 위 집 단	4 (2.6)	120 (78.9)	18 (11.8)	10 (6.6)	152
계	7	155	107	32	301

$x^2 = 98.34$ $d \cdot f$: 3 $P < .005$

敎育環境의 마지막 問項으로서 學校施設이나 行政的 支援이 學生들의 學業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가를 上·下位集團間에 비교하여 보았다. 表〈 H-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集團의 60%以上의 학생들이 별다른 影響을 받지않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예상외로 下位集團 學生들의 「 비교적 그렇지 않다 」가 77%에 이르고 있음은 特記할만하다고 애기하고 싶다.

表〈 H-8 〉, 학교 시설이나 행정지원이 미흡하여 학업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응답내용 / 집단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상 위 집 단	16 (10.7)	40 (26.8)	60 (40.3)	33 (22.1)	149
하 위 집 단	7 (4.6)	19 (12.5)	117 (77.0)	9 (5.9)	152
계	23	59	177	42	301

$x^2 = 43.04$ $d \cdot f$: 3 $P < .005$

2. 要因別 上·下位集團의 比較

學業의 成績과 關係된다는 自我槪念, 學習動機 等 8개의 要因에 있어서 提示한 各 問項別로 그 反應에 따른 x^2 檢定을 하고 上·下位集團間에 서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해석하였다.

本項에서는 8個의 各要因에 대한 上·下位集團의 分散을 測定함과 同時에 어느 程度 有意義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各 要因別 平均値는 要因에 주어진 各個問項의 應答을 表〈 2-1 〉에서와 같이 무게를 주어 측정한 것이다.

自我槪念 要因에서 平均値를 본 결과 上位集團은 21.3289로서 最高平均期待値 32에 비하면 60%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下位集團의 경우 平均値는 12.3826으로서 37%의 水準에 겨우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下位集團의 標準偏差는 2.145로서 上位集團의 標準偏差 4.787보다 적은 分散을 나타내고 있어 下位集團에서가 比較的 同質的 생각이나 行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學習動機에 있어서는 上·下位集團간에 自我槪念과 비슷한 分散을 보이고 있으나 平均値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진다.

學習技術에 있어서는 上·下位集團에 있어서 各 平均値가 바람직한 期待値로 上向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自我槪念의 경우와는 달리 上位集團學生의 分散정도가 下位集團보다도 적음을 알 수 있다.

表〈 2-1 〉, 要因別 上·下位 集團의 比較

Factors	Table No.	Group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T Value	P
自我概念	A(1~8)	상 위	21.3289	4.787	0.388	20.99	P<.005
		하 위	12.3826	2.145	0.176		
學習動機	B(1~7)	상 위	19.2171	3.034	0.246	15.90	P<.005
		하 위	14.1477	2.475	0.203		
學習技術	C(1~8)	상 위	24.1250	3.074	0.249	18.94	P<.005
		하 위	17.2483	3.226	0.264		
學習態度	D(1~7)	상 위	20.8289	2.874	0.233	20.70	P<.005
		하 위	13.9866	2.859	0.234		
教授方法	E(1~8)	상 위	22.5329	2.003	0.162	13.95	P<.005
		하 위	18.3423	3.084	0.253		
適性 및 能力	F(1~8)	상 위	22.7895	3.589	0.291	19.84	P<.005
		하 위	15.6980	2.530	0.207		
人間關係	G(1~6)	상 위	18.4013	1.633	0.132	12.48	P<.005
		하 위	15.0000	2.906	0.238		
教育環境	H(1~8)	상 위	22.3026	2.500	0.203	12.39	P<.005
		하 위	18.2891	3.091	0.253		

註: 각 문항별 4단계 응답중 바람직한 순으로 4, 3, 2, 1의 무게를 주었으며, 다만 부정적 질문인 경우 역산했다.

學習態度에 있어서는 下位集團의 平均値가 다소 상향되고 있고 各 集團에서의 見解는 上·下位集團 모두 비슷하게 분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教授方法에 있어서는 下位集團 學生들이 평균치 18.3423으로 최고평균기대치에 대한 57%의 水準으로 매우 上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上位集團에 비하면 同質的 경향이 다소 적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適性 및 能力에 있어서도 上位集團에 비해 下位集團 學生들이 역시 평균치가 낮기는 하나 上位集團보다는 同質的 見解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間關係에 있어서는 上·下位集團 모두가 다른 要因들에 비하면 上向되고 있어 원활한 人間關係가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上位集團 학생들은 매우 同質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음은 특이한 결과라고 하겠다.

教育環境에 있어서도 下位集團의 平均値가 他要因들에 비해서 매우 上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다만 上位集團의 견해와 비교하면 비교적 동질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以上의 각 要因들을 綜合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각 要因別로 上·下位集團間의 反應은

差異가 있다고 보아진다.

表〈 2-1 〉에서 보여주는 t 값은 自由度($d \cdot f$) 299 (∞)에서 찾으면 上·下位集團은 0.5 % 수준에서 高度의 有意性이 있는 것으로 說明된다.

Ⅴ. 結論 및 提言

한 개인이 어떠한 學習狀況에 適應하느냐 못하느냐의 原因에는 그 個人에게 주어진 內的, 外的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습자들 가운데는 그들의 學習課題를 생산적으로 감당해 가며 期待水準에서 더욱 높게 成就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個人이 發達水準이나 教育關係에서 요구되는 最低水準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같이 學習者 간에 이러한 差異가 있게되는 원인에는 教師, 學生, 授業, 環境 등 諸變因이 있기 때문이라고 發表한 文獻들을 調査한 바 있었으며 本 研究에서는 이들의 變因을 더욱 具體的으로 分析하여 學習者 자신의 욕구와 실현에서 誘起될 수 있는 自我概念, 學習動機, 學習技術, 學習態度, 人間關係, 適性 및 能力 등의 學習者 內的인 요인과 教授方法, 教育環境 등 學習者 外的인 요인들을 學習者에 더욱 가까이 接近시켜 重要視한 것이다.

학업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는 앞의 여러 요인에서 어느 한 요인에만 영향되어 부적응을 낳게하는 경우들도 있겠으나 本 研究의 主題에서 「綜合的 分析」을 목표로 했으므로 上記한 여러 要因을 研究對象에게 適用시켰다.

이와같이 本校 在學生 中 學業成績이 優秀한 上位集團과 學業成績이 不振한 下位集團 학생을 對象으로 이를 適用, 比較한 結果를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

1) 自我概念에 있어서 上·下位集團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아개념의 발달은 학업부적응 학생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2) 學習動機 誘發의 與否는 學業成就 또는 學業不適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下位集團 학생들에게 確固한 價値意識을 심어주어 興味誘發과 學習意慾 고취에 힘쓸 필요가 있다.

3) 學習技術의 未洽으로 下位集團 학생들은 學業不適應 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學習을 위한 면밀한 준비와 학습내용의 이해를 위한 方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4) 學習者의 그릇된 態度나 習慣은 學業成績과 관계가 깊다. 특히 주의집중력이 없는 산만하고 해이된 태도는 학업부적응의 큰 原因이 되고 있다.

5) 下位集團 학생들은 專攻學科에 適性이나 履修에 따르는 基礎能力이 부족한 것으로 類推되고 있어서 適應을 위한 집요한 훈련과 自信感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6) 人間關係에서 갈등이나 소외감은 學業에 影響을 주고 있다. 上·下位集團 모든 학생들은 비교적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나 下位集團 학생의 學業, 環境, 性格 등에 집중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學習者의 理解能力을 고려한 적절한 授業이 要求되고 있으며 講義式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수업형태가 下位集團 學生에게 더욱 요구되고 있다.

8) 대학의 文化와 風土, 家庭環境 등은 學業成就와 관계가 있다. 특히 下位集團에서 勉學環境 造成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結果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들의 學業不適應 問題를 다소나마 解決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方案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 관점에서 提言코자 한다.

첫째, 學習의 全體 過程에서, 그 學習의 水準, 程度 및 結果를 구체적으로 評價, 確認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學問的 自我槪念은 학업성취 상황에서 교수태도와 기술, 학습내용, 평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나 특히 요즘과 같은 학습상황과 분위기로 볼 때 學習結果만을 가지고 成功的이냐 失敗이냐는 自我槪念이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成敗의 결과로서 A~F라는 기호만이 feedback되어 한 과목에 대한 성패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한 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여기에 투입되는 學生의 行動이 전적으로 肯定的일수만, 혹은 否定的일 수 만은 없다. 즉,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투입되는 행동의 長短點이 있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실패경험이 失敗感, 不滿足感을 갖게되어 학업에 대한 否定的 自我槪念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學習過程과 結果에 대해 肯定的이고도 向上된 부분에 대해 인정감을 갖도록 즉시적 강화가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認識, 確認, 承認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學問的 刺戟이 誘發될 수 있도록 敎授·學習方法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은 敎育에 있어서 가장 中核的인 활동인 것이다. 학습의 效果는 가르치고 배우는데 동원되는 모든 기술이나 그 활동에 관련된 모든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바라는 젊은이들의 敎育現場에서 낡은 방법만을 구사하게 될 때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여 學習動機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方法이 동원되어야 하며 수업의 방식과 형태까지도 創意的인 方法으로 變化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學習習慣 構造改善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에 임하는 태도와 습관은 학생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기에 學習習慣에 대한 構造的인 문제를 客觀化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注意集中行動, 學習技術, 適應行

動, 그리고 自律學習行動 등이 학업성취 내지는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다면 학습습관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中·高等學校와 大學에서의 學習風土가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大學에서 학습상황에 적절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하계 방학을 이용한 集團指導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교수·학생간 심리적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教授와 學生間의 관계는 단순히 教科內容만을 매개로 하는 學習關係에서 그치는 것이아니라 교수와 학생간 심리적 유대감 형성 여하에 따라 학생의 學業成就度와 學科에 대한 興味 및 動機 등 학생의 情意的·社會的 行動特性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學校教育은 教授·學生과의 人間關係를 주축으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들이 어떤 人間關係를 맺느냐에 따라서 학습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業成就를 위한 先決課題는 教授와 學生間 人間的 유대감을 갖는 일이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人格的 대우는 물론 力動的인 學習雰圍氣造成에 힘써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姜武燮, 「韓國高等教育의 未來展望과 發展戰略」,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85.

姜相兆, 「學校環境의 한 槪念模型」, 서울 :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5.

姜相兆 · 李章玉, · 李相尙, 「韓國의 學校文化」, 行動科研 研究NOTE. 제 9권, 서울 :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6.

康順善外, 教授 - 學生의 人間關係 定立에 關한 研究, 濟州大, 學生生活研究, 7, 1985, pp.4 ~ 5.

啓明大學 學生指導研究所, 「指導相談」, 1973.

權樂遠, 「學生이 知覺한 父母 및 教師의 成就期待가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金彦柱, 「學校의 心理的 行動要因과 學業成就度와의 關係」, 行動科研 研究NOTE, 서울 :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5.

金玉煥, 「學業成績, 知能, 學習習慣, 性格의 相關研究」, 延世大 人文科學, 1979.

金豪權, 「自我槪念의 變化에 관한 擬似 縱斷的 研究」, 서울 :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9.

朴慶淑 · 李惠先, 「學業에 대한 自我槪念. 態度, 學習習慣 檢査開發에 관한 연구」,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76.

朴容憲, 「成就動機教育의 教授方案」, 서울 : 教育出版社, 1974.

_____, 「學校社會」, 서울 : 培英社, 1969.

辛世浩外, 「學習不振學生에 대한 理論的 考察」,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79.

沈愚燁, 「成就動機 및 試驗不安과 成敗의 原因知覺間의 關係分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吳基亨外, 「教育學槪論」, 서울 : 文音社, 1984.

梨花女大 師大 人間發達研究所, 「學業不振學生 指導를 위한 實驗的 研究」, 1973.

張大雲, 「現代教育心理學」, 서울 : 正民社, 1985.

鄭範謨 · 李星珍, 「學業成就의 要因」, 서울 : 教育出版社, 1979.

鄭植永, 「學習指導」, 서울 : 載東文化社, 1972.

鄭元植外, 「現代教育心理學」, 서울 : 教育出版社, 1983.

鄭元植, 「學業不振의 原因糾明을 위한 事例研究」,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79.

崔正薰, 「知覺心理學」, 서울 : 乙酉文化社, 1973.

許炯外, 「家庭環境의 諸要因과 學業成就度와의 關係」, 서울 :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4.

洪載鎬外, 「學業不振學生을 위한 補充學習資料 開發 및 適用」, 서울 : 韓國教育開發院, 1979.

Adamson, K. K., "A Hand-Book for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N.Y. : Gardner.

Press, Inc., 1979.

Alexander, M., "The Relation of Environment to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Master Thesis, Univ. of Chicago, 1961.

American Higher Education, "Study Group on the Conditions of Excelle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volvement in Learning": Realizing the Potential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1984.

Ausubel, D.P. & Robinson, F.G., "School Learning: An Introduction to Educational Psychology." N.Y.: Holt, Rinehart & Winston, 1969.

Ausubel, D.P., "Educational Psychology," N.Y.: Holt, Rinehart & Winston, 1968.

Baird, L.L., "The Practical Utility of Measures of College Environment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74.

Bloom, B.S., "Human Characteristics & School Learning," N.Y.: McGraw-Hill, Book Co., 1976.

Brookover, W.B., et al., "School Can Make a Difference, East Lansing Michigan": College of Urb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7.

Brookover, W.B., Patterson, A. & Thomas, S.,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1967.

Caplin, M.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J. Experimental Education, 1969.

Carroll, J.B., "A Model of School of Learning," Teacher College Record, 64, 1963.

Clarizio, H.F. (ed.), "Contemporary Issues in Educational Psychology," Boston: Allyn & Bacon, Inc., 1981.

Clark, B.R., "Educating the Expert Society," San Francisco: Chandler, 1962.

Coleman, J.S., "The Adolescent Society," N.Y.: The Free Press, 1961.

Coleman, J.S., et al.,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0.

Dave, R.H.,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Ph.D.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1963.

Dececco, J.P. (ed.), "In Educational Technology",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4.

Feather, N.T., "Change in Confidence Following Success or Failure as a Prediction of Subsequent Performance," J.Pers.Soc.Psychology, 1968.

Fullerton. S., Self-Concept Changes of Junior high student, J.Counseling Psychology, 1973.

Gagné, R.M., "The Cognitions of Learning", N.Y.: Holt, Rinehart & Winston, 1970.

Gordon, W.C., "The Social System of the High School," N.Y.: The Free Press, 1957.

Gronbach, L.J., "Educational Psychology", N.Y.: Harcourt & Brace & World, Inc., 1962.

Hall, C.S.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Y.: Wiley, 1967.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McGraw-Hill International Book Co., 1981.

Klausmeier, H.J. & Ripple, R.E., "Learning and Human Abilities", N.Y.: Harper & Row, 1971.

Lindquist, E.F. (ed.), "Educational Measurement,"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f Education, 1951.

London, H. (ed.), "Dimensions of Personality," N.Y.: John Wiley & Sons, 1978.

Mitzel, H.E., "A Behavior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Teacher Effectiveness," 1957.

Peterson, P.L. & Walberg, H.J. (ed.), "Research on Teaching : Concepts, Findings and Implications," Barkeley, California : McCutchan, 1976.

Sanford, N. (ed.), "The American College," N.Y.: Wiley, 1962.

Skinner, B.F., "The Technology of Teaching," N.Y.: Appleton Century Crofts, 1968.

Stipe K.D., "A Caus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irst Grad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980.

Thomas, J.B., "Self-Concept in Psychology and Education." NFER Publishing Co., 1973.

Weiner, B., et al., "The Cognition-Emotion Process in Achievement Related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附 錄＞

설 문 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에서 학습방법, 교수방법, 교육환경 등 학업성공과 관계되는 요인들을 조사, 연구하여 여러분의 더 높은 학업성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설문들은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자료로만 이용할 것이므로 아래"예시"와 같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무기명으로 즉시 우송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986. 11.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 드림

"예시"

당신은 시험시간표가 발표된 후에야 시험공부를 하는 편입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V)	( )	( )

( )학과	( )학년	만( )세	성별(남, 여)	병역(필, 미필)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1. 당신은 제주대학생으로서 조금도 손색없이 항상 당당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A－2. 당신은 현재 보람있는 것에 열중하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A－3. 당신은 학교성적이 보통보다 낮아도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졸업만 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A－4. 당신은 당신의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A－5. 당신은 교육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6. 당신은 남들처럼 부지런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A－7. 당신은 대학생활에서 학문활동보다는 교양활동, 서어클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A－8. 학교에서 공강시간에 혼자서 교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B－1. 당신은 공부하는 목표나 졸업후 목적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여 학습의욕을 잃을 때가 있으십니까?	( )	( )	( )	( )
B－2. 당신은 실제로 가치가 없고 흥미없는 학과를 택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으십니까?	( )	( )	( )	( )
B－3. 당신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졸업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B－4. 당신의 주위에서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더 알찬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대학을 그만두고 취직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읍니까?	( )	( )	( )	( )
B－5. 당신은 당신의 주위(가정, 친척, 학교 등)에서 학업을 성취하여 당신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 편입니까?	( )	( )	( )	( )
B－6. 당신은 성공한 대학선배나 명성있는 분의 특별강좌를 자주 듣고 싶어 하십니까?	( )	( )	( )	( )
B－7. 당신은 관계업소(기관)의 답사나 또는 현장실습을 했던 경험이 학습의욕을 북돋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C－1. 당신은 무엇을 읽을 때 단원의 제목이나 예제를 먼저 훑어보지 않고 그냥 본문부터 읽기 시작하는 편입니까?	( )	( )	( )	( )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2.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도 읽는 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자주 있읍니까?	( )	( )	( )	( )
C－3. 당신은 책이나 논문을 읽을 때 숫자, 그래프, 도표 등을 흔히 빠뜨리고 읽는 편입니까?	( )	( )	( )	( )
C－4. 당신은 시험준비를 할 때 공식, 정의, 법칙 등의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마구 암기할 때가 가끔 있읍니까?	( )	( )	( )	( )
C－5. 당신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항시 복습하고 배울 것을 미리 예습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C－6. 당신은 시험시간표를 발표한 후에야 시험공부를 하는 편입니까?	( )	( )	( )	( )
C－7. 당신은 학습시간에 교수님께 자주 질문하고 또한 참고서를 찾으면서 의문을 풀려고 애쓰시는 편입니까?	( )	( )	( )	( )
C－8. 당신은 수업시간에 필기한 노트를 뒤에 다시 읽으려고 할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읍니까?	( )	( )	( )	( )
D－1. 당신은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지 않고 낙서를 하거나 공상을 하면서 수업시간을 보낼 때가 있읍니까?	( )	( )	( )	( )
D－2. 당신은 자리에 누워서 또는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입니까?	( )	( )	( )	( )
D－3. 당신은 학교에 제출할 과제물이나 리포트를 마지막 날까지 미루시는 편입니까?	( )	( )	( )	( )
D－4. 당신은 공부를 해야하는 데도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자주 있읍니까?	( )	( )	( )	( )
D－5. 당신은 흥미있는 과목만 공부했기 때문에 흥미없는 과목의 성적은 떨어진 적이 자주 있었읍니까?	( )	( )	( )	( )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D－6. 당신은 수업시간에 늦거나 결석을 해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D－7. 당신은 수업시간에 앞좌석에 앉기를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E－1.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당신의 이해능력과 학습과제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까?	( )	( )	( )	( )
E－2. 당신은 강의를 받을 때 강의의 요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으십니까?	( )	( )	( )	( )
E－3. 대부분의 교수들은 당신에게 새롭고 깊은 지식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애쓰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E－4. 연구와 강의에 충실한 교수들보다 학문적 업적이나 공헌으로 전국에 명성이 나 있는 교수들을 더욱 존경하는 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	( )	( )	( )
E－5. 당신은 열심히 강의를 듣지 않아도 학점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E－6. 대부분의 강의시간은 진지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E－7. 모든 교수님들은 강의과목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편입니까?	( )	( )	( )	( )
E－8. 당신은 수업시간에 학습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기회가 자주 있으십니까?	( )	( )	( )	( )
F－1. 당신은 당신의 현재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이나 장래성을 충분히 고려하신 편입니까?	( )	( )	( )	( )
F－2. 당신은 다른 학생처럼 부지런히 공부해도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F－3. 당신은 과제물이나 리포트를 조사하고 작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4. 당신은 당신의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흥미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F－5. 당신은 논문형 문제를 풀어갈 때 정해진 시간내에 끝마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까?	( )	( )	( )	( )
F－6. 당신은 시험문제를 주의깊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치른 후 아는 것도 틀려버린 경우가 가끔 있읍니까?	( )	( )	( )	( )
F－7. 당신은 강의내용의 필기나 요약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F－8. 당신은 교과목에서 출제된 시험문제가 교수님의 평소 강의내용과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편입니까?	( )	( )	( )	( )
G－1. 당신은 강의실 이외에서도 자신의 학업에 관해 교수님과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G－2.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당신의 흥미, 욕구, 포부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G－3. 당신은 자신의 성격, 진로, 또는 자신의 환경 등에 대하여 교수님들과 가끔 상담을 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G－4. 당신은 웃어른의 지도나 또는 친구의 충고와 조언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G－5. 당신은 어느 과목의 학점이 낮았을 때 해당교과 교수님을 미워한 적이 가끔 있으십니까?	( )	( )	( )	( )
G－6. 당신은 학교에 제출할 과제물의 조사를 하거나 또는 시험공부를 할 때 친구들과 거의 같이 하는 편입니까?	( )	( )	( )	( )
H－1. 당신은 우리 대학의 교문안에 들어서면 들어서기 전에 비해 학습의욕이 우러나온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전적으로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H－2. 당신의 학부모는 당신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H－3. 당신은 필요한 책이나 참고자료를 쉽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 )	( )	( )	( )
H－4. 당신은 불안, 우울, 싫증 등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으십니까?	( )	( )	( )	( )
H－5. 당신은 너무 피곤하거나 잠이와서 공부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 편입니까?	( )	( )	( )	( )
H－6. 당신의 집에 친구 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부를 방해할 때가 흔히 있으십니까?	( )	( )	( )	( )
H－7. 당신은 평소 공부하는 방 밖에서 소음이나 복잡한 주위환경 때문에 공부하는 데 방해를 받을 때가 있으십니까?	( )	( )	( )	( )
H－8. 당신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이나 그외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당신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 )	( )	( )	( )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